발간등록번호 11-1833100-100087-01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구술 자서전 057

안동차전놀이 이재춘

의미와 사기를
상기시키는 데는
더할 게 없는
민속놀이지요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구술 자서전 057

안동차전놀이

이재춘

의미와 사기를
상기시키는 데는
더할 게 없는
민속놀이지요

국가유산청

'어쩌든지 부끄럽지 않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책무가 딱 몸에 배이니까
전체를 매달리게 됐죠.
또 인간문화재라고 하니까
그 직함이 굉장히 고귀한 직함이잖아요.

화합하고 협동하고 단결 안 하면

차전놀이가 안 된다 그래요.

지휘자가 잘하는 게 아이고,

동채꾼들이 서로 안 돕고 그런 관념이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

화합 안 하면 안 되죠.

협동,

같이 안 움직여주면 안 되죠.

거기다 우리가 차전놀이 하이께네

단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단체놀이기 때문에

이수생은 기여를 100% 다 했습니다.

누구 하나 더 했다, 덜 했다 할 수 없을 만치

각 분야에 다 한 겁니다.

내 혼자 해서 되지를 않잖아요.

돈 안 보고 온 사람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고 하는 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내가 사철 "참 고맙다." 그래.

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 기록화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3년에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 보유자 이재춘의 구술 채록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하였다.
2. '안동차전놀이란'은 조사자 이한승이 작성하였다.
3. 이 책은 구술 채록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현장성과 본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하였다.
4. 구술 내용 중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과 인명, 단체명 등은 주석 및 위 첨자로 처리하였다.
5. 구술 내용은 구술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한 것이므로 날짜·장소·인명 등의 기억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6.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진 자료는 구술자의 소장 자료를 활용하였다.

차례

안동차전놀이란 14

이재춘의 생애 18

01_ 태백산 밑에서 낳았다고 24

02_ 규수를 하나 구해다고 40

03_ 언론 계통에 사무 머무르게 됐어요 52

04_ 굉장히 고귀한 직함이잖아요 62

05_ 동채라는 건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72

06_ 내 혼자 해서 되지를 않잖아요 96

07_ 안동에 이런 좋은 놀이가 있다 116

08_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 같지 136

09_ 나도 보면 참 운이 좋았는 편이에요 146

조사자 약력 158

안동차전놀이란

안동차전놀이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전승되는 편을 갈라서 겨루는 편싸움 형식의 대동놀이이다. 차전車戰은 문헌과 세시의 관행을 살펴보면, 안동 지역 외에도 강원 춘천, 전북 남원, 경북 의성 등지에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동 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차전놀이를 했으며,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인 동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기에 동채싸움이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안동차전놀이의 기원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몇 가지 기원 전설이 전해진다. 이러한 기원 전설의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후백제 견훤이 삼국통일을 위해서 안동 지역에 진격하였을 때 왕건을 도와서 안동의 김선평·권행·장정필장길이 고창현 안동전투의 승리에 일조하였고, 이 승리를 기념하는 뜻에서 안동차전놀이가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3명은 삼태사로도 일컬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안동태사묘에 3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안동차전놀이의 특징은 나무로 만든 동채를 이용한 편싸움이라는

점이다. 문헌에 따르면, 16~17세기의 안동차전놀이는 서로 동채를 맞부딪쳐서 상대방의 동채를 파괴함으로써 승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안동차전놀이는 공중에서 서로 동채를 내리눌러서 땅에 먼저 떨어지는 편이 패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각 편에서는 전체 지휘를 맡은 대장을 동채 위에 각각 태우고, 대장의 지휘에 따라서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인원이 안동차전놀이에 참여한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서 강한 몸싸움을 벌이며 상대편의 진용을 흐트러뜨리는 머리꾼, 동채를 메고 대장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채꾼, 그리고 각 편의 동채를 따르며 자기 편의 동채를 보호하며 응원하는 놀이꾼 등으로 인원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 방식으로 인해서 안동차전놀이의 전승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을 필요로 한다.

안동차전놀이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전승이 한동안 단절되었으나, 초대 보유자인 김명한을 중심으로 하여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안동차전놀이는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196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196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1969년 1월 7일에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면서 종목 명칭이 안동차전놀이로 공식화되었고, (사)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전의 안동차전놀이는 격렬한 편싸움을 통해서 승부를 가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복원된 안동차전놀이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여를 위해서 화려한 싸움 위주의 공연화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복원 초기에는 안동 지역의 학생들로 안동차전놀이에 참여할 대규모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거친 형태의 편싸움을 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지금의 안동차전놀이도 거친 편싸움을 통해서 승패를 가르기보다는 안동 지역의 전통 놀이문화를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며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춘의 생애

이재춘은 1941년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업을 하던 부친 아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은 조부의 사업 덕에 비교적 유복하게 보냈지만, 고등학교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학업에 큰 영향을 받았고, 서울대를 꿈꾸며 공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군대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가 권정숙을 만나 스물다섯에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고향에 정착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한동안 농사에 전념하던 이재춘은 안동군청에 들어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언론계로 진로를 바꿔 안동MBC를 거쳐 대구매일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뒤늦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했고, 안동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안동문화원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도 병행했다.

이재춘은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안동차전놀이와 인연을 맺었다. 안동차전놀이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과정에서 초대 보유자인 김명한 선생을 도와 실무를 맡았고, 전수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1991년, 51세에 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 보유자로 인정

받으며 전통문화 계승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안동차전놀이 보유자로 인정되기 전부터 그는 행사마다 동채에 올라 대장 역할을 해왔다. 대장은 많은 이들이 원하는 역할이었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는 생계에 여유가 있고 전통에 애정이 있는 인물들을 이수자와 전수생으로 선발해 보존회의 기반을 다졌다. 매년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을 치르며 가장 큰 어려움은 인원 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200명을 상비군처럼 운영하는 등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썼다. 그는 초대 보유자인 김명한 선생이 강조했던 협동, 단결, 화합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그 정신을 후배들과 함께 이어나가려고 노력했다.

2023년 그는 안동차전놀이보존회장직을 내려놓고 현재는 보유자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 회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조용할 틈 없이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안동차전놀이와 함께해 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재춘은 참 운이 좋았던 인생이었다고 말한다.

이재춘이 걸어온 길

연도	나이	내용
1941년	1세	아버지 이용직, 어머니 권오교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실제 출생연도는 1940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동이 고향
1953년	13세	안동중앙국민학교(현 안동초등학교) 졸업
1956년	16세	경북중학교 졸업
1959년	19세	경북고등학교 졸업
1965년	25세	부인 권정숙 씨와 혼인
1966년	26세	안동군청 공무원 재직
		안동차전놀이 입문 안동차전놀이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1967년	27세	안동차전놀이 제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장남 이상준 출생
1968년	28세	안동차전놀이 제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1969년	29세	안동차전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김명한 초대보유자 인정)
		(사)안동차전놀이보급회 설립(1986.11.1. 안동차전놀이보존회로 변경)
		차남 이병준 출생
1970년	30세	막내딸 이호경 출생

1972년	32세	안동차전놀이 전수생 인정
		안동MBC로 이직하여 기자로 근무
1975년	35세	대구매일신문사로 이직하여 기자로 재직(~1996)
1980년	40세	안동차전놀이 이수자 인정
1985년	45세	안동차전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1986년	46세	안동차전놀이 보유단체 인정
		경북 기자협회 회장
1989년	49세	김명한 작고 후 안동차전놀이보존회 회장
		안동차전놀이 보유자 후보 인정
1990년	50세	안동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1993)
1991년	51세	안동차전놀이 보유자 인정
2000년	60세	독일 하노버 엑스포 안동차전놀이 초청 공연
2006년	66세	안동차전놀이 전수관 준공
2010년	70세	안동문화원 제13~14대 문화원장(~2018)
2013년	73세	독도에서 안동차전놀이 시연
2015년	75세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안동차전놀이 시연
2016년	76세	캐나다 벤쿠버에서 한인문화의 날 초청 공연
2018년	78세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 초청 공연
2019년	79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2020년	80세	안동차전놀이 전수교육관 개관

각종 인증서

연번	내용	수여자 또는 기관	일자
1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기자 재교육 특수강좌 과정 이수 기념패	서울대학교	1973
2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기자 재교육 특수강좌 과정 이수증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1973
3	한국언론연구원 수료증	사단법인 한국언론연구원	1984
4	매일신문사 사회부 재직기념패	매일신문사 제2사회부 지방기자 클럽	1988
5	대구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증서	대구대학교	1988
6	대구대학교 공로패	대구대학교	1988
7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증서	문화재관리국	1989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문화부장관	1991
9	매일신문사 공로상	매일신문사	1991
10	안동시체육회 및 안동시 공로패	안동시체육회 및 안동시	1993
11	매일신문사 공로패	매일신문사	1994
12	매일신문사 사회부 감사패	매일신문사 사회2부	1995
13	경상북도 문화상	경상북도	1996
14	대한체육회 공로패	대한체육회	1997
15	육군사관학교장 감사패	육군사관학교	1999
16	전통예술학사 학위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2003
17	한국국학진흥원 감사패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	경상북도 자랑스러운 도민상 본상	경상북도	2012
19	대한축구협회 공로패	대한축구협회	2015
20	금오대상 문화예술부문 상패	사단법인 금오회	2017
21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공로패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2018
2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로패	문화체육관광부	2018
23	경상북도지사 감사패(문화원장)	경상북도	2018

01

태백산 밑에서 낳았다고

· 내 이름을 재춘으로 그래 바깠습니다
· 나는 그때 운동화를 신었거든
· 붙들려가 대구로 전학을 갔어요
· 자전차 타고 눈물 줄줄 흘리고
· 우리가 망할 때까지 다 망했어요

이재춘은 1941년 부친이 광산업을 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북 안동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 때 대구로 전학해 명문고에
진학했고,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사업을 하던 조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고등학교 시절 집안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 이름을
재춘으로 그래 바깠습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동, 진성 이씨 제일 큰 집이 있는 두루[주하동을 달리 부르던 마을 명칭]입니다. (진성 이씨가 안동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24대이고, 28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많지는 않죠. 우리 시조가 이[李], 자[子] 자, 수[脩] 자, 그다음에 2세가 송안군[松安君]입니다[1]. 국가에 공로가 많아서 진성 이씨로 본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선조들이 청송[경상북도 청송군]이 산골이고 너무 시골이 돼서 안동을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안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풍산 마애동[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와가 터를 잡았는데, 뒷산이 낮고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는데 절벽이 많아요. 아들[아이들]이 절벽이 많으면 사고가 마이 나고 공부를 시키는 데 옳지 못하다 이래서 어른들이 안동 지방에 터를 보러 다녔어요. 와룡면 주하동 두루에 우리 종택 하나를 보고 왔는데, '600년을 거기에서 세거[世居]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터를 잡아가지고 26세손, 27세손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전에 일본 시대[일제강점기]에 강원도 태백[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카는 데 가서 금광, 광산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이 돼도 안 오시니까 우리 어머니[권오교(權五嬌)]가 이거 뭐 누구 데리고 사나 궁금하니께

1 구술 오류, 시조는 이석이며 2세인 이자수가 송안군에 봉해짐.

네, 내를 뱃속에 만삭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싶어서 태백까지 왔어요. 나를 배에 옇어가지고 차가 없으니 태백까지 걸어 갈라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가가지고 어머니가 퍼져버렸어요. 드러누워가지고 앓으면서 나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지를 못하고 거서 100일을 지냈는데, 삼촌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마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태백산 꼴두바우[꼴두바위,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에 있는 바위] 카는 광산에서 낳았기 때문에 흰 백[白] 자를 써서 재백[載白]이라 했어요. 태백산 밑에서 낳았다고. 재[載] 자는 우리 돌림 항렬이 재 자고. 그런데 우리 셋째 숙모가 (시집을) 왔는데 정재백이라. 이름이 같애가지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이래서 내 이름을 재춘[載春]으로 그래 바깠습니다. 숙모가 시집온 때가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땐가 드가기 전인가, 바까 버렸죠. 내가 할아버지[이흥걸(李興杰)]한테 봄 춘[春] 자가 여자 이름 같다고 얘기하니까, 중국서 봄 춘 자를 제일 애낀답니다. 봄 춘 자 쓰는 게 남자고 여자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놔두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썼어요. (태어난 해는) 40년 되죠.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1년 있다가 했으니까[주민등록상 1941년 출생]. 형제가 4남매가 있었는데 내가 맏이죠.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은 군에 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이[셋] 남아 있죠.

우리 조부님은 사업도 하셨지만은 글을 많이 썼어요. 동네(사람이)나 친척이나 자식 놓으면 전부 다 이름 지으러 우리 집에 왔어요. 또 할아버지 촌에 가보면 대소가[大小家]에 지금도 한 대여섯이 있습니다

만, 전부 다 이름 지어주고 글 가르쳐줬어요.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안동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할아버지랑 떨어져서 못 배았는데, 4학년 때 내가 『소학』[송나라 때 아동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수양서]을 띴다 그래요. 『소학』이면 상당히 수준이 높았는데, 그 후로 안동 와가지고 중학교 드가가 고등학교, 사회 나가고 대학교까지 한문을 안 썼으니까 지금은 천자문도 내 다 알라는가 모르겠어요. 조부님은 돈도 마이 가지고 계셨지만은 한시를 많이 썼어요. 써가지고 봉정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밑에 보면 명옥대라 카는 데가 있는데, 안동에서 학자들이 모여가 시 쓰고 노는 자리에 (할아버지) 함자가 쓰여 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조선 금강산을 비롯해서 전라도하고 안 댕긴 데 없어요. 가면은 시를 다 썼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 정자 시를 썼는데, 그 책을 누가 다 훔쳐가고 몇 부 남았는 걸 국학원[한국국학진흥원]에 지금 기증해 놔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용직(李容直)]는 경상북도의 육상 선수예요. 엄팔용[嚴八龍, 1931~1995, 육상인]이라고 경상북도 기록을 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기록을 세웠어요. 시군 대항을 하면은 스타트를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잘하는 게 엄팔용 씨예요. 육상을 뛰면은 경상북도 경주 아니면 안동에서 1등 했어요. 도 대회 1등 하면 안동시는 시가행진하고 막 난리 났거든.

나는 그때 운동화를 신었거든

해방 이후에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집은 지었는데 창고 같은 교실에 가마니 깔아놓고 우리가 1년을 배웠어요[1948년, 8세]. 그래서 촌에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안동서 제일 큰 중앙국민학교[현 안동초등학교]로 왔어요. 8클라스[반]가 한 학년이었었는데 여기서 공부를 했죠. 안동에서 80%가 그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가 컸어요. 저희 집은 그때만 해도 사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집이 안동 시내에만 3채 있었어요. 또 내가 맏손자니까 잘 지냈어요. 우리가 맨 노는 시간이면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고무신 신고 공 차고 이러면 (고무신이) 공보다 더 멀리 가뻐려요. 날아가지고 저 우[위]에 있는데 나는 그때 운동화를 신었거든. 운동화 신고 차다보면 공이 디게 멀리 가. 근데 공이 또 없어 못 차요. 돼지, 소불알에 바람을 팍 옇어가지고 매가지고 찬 건데, 해까바니까[가벼우니까] 차면 저 멀리 간다고.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쌀밥을 먹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할아버지하고 내가 겸상을 했는데 할아버지 밥은 이밥[쌀밥]이 쫌 섞이거든요, 어른이라. 그러고 내 밥은 쪼끔 못하고. 나는 장손이라가지고 말하자면 대우가 많았죠. 그런데 마루에서 먹는 (식구들은) 전부 다 보리밥 먹어요. 그것도 있는 집이 됐으니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면 언제든지 한 숟가락 남굽니다. 꼭 남구요. 그러면 우리 삼촌들이 이래 있다가 할아버지가 "야야, 밥 내가라." 이카면 막 서로 쫓아 들어올라 그러거든. 그 밥 찌끄레기 남았는 것 먹을라고 서로

쫓아 들어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식사는 임금 밥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고등어 한 마리 꾸우면은 뱃살하고 맛있는 건 할아버지 (드시고) 삼촌은 대가리 꾸워 먹잖아요. 숯불에 꾸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서로 막 잡아 뜯고 이랬죠. 그리고 우리가 숙모나 어머니 클 때는 양푼이가 없었고 큰 낭구[나무] 파가지고 양푼이를 맹글었거든. 거기다가 나물을 기양 손으로 이래 잡아 떼가지고 보리밥 비벼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고추장은 아까워가 못 먹고 된장 해가지고 먹었죠.

고향 집이 겹집인데, 집 지을 때 와가[瓦家], 기와로 지을라고 기둥하고 다 했는데 기왓장을 못 구했어요. (기왓장을) 기냥 파는 게 아이고 구워야 되는데 굽지를 못해가 날개[지붕을 덮기 위해 볏짚으로 엮은 이엉을 의미]를 했는데 120날개가 드갔습니다. 12명이 우리 큰 마당에서 했는데, 한 아이가 날개를 열 발 이상 했거든. 보통 날개 엮는 날은 14-5명이 동원이 됐어요. 굉장히 큰 집입니다. 지금도 주하리에 있는데, 그 집터가 한 350평 됩니다. 그때 우리 일가 어른들이 예안[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산면, 와룡면 일대]에 있었는데, 오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옛날엔 여자들은 바깥어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20명 내지 한 30명 이상 우리 집에 모이면 (할머니가) 점심을 전부 다 손수 국시[국수]를 해가지고 먹였어요. (국수가) 손도 적고 돈도 적게 들고 많은 사람 맥일라 그러면 (좋죠.) 요즘은 비빔밥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모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국시만 해 먹이고 살다 죽는다." 이랬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한 3, 4학년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 회갑(잔치를 했어요.) 옛날에 흉년에 이만침 차린 게 있습니까? 어데 가도 없어요. 6·25 전쟁 전후 돼가지고 암만 회갑이라도 과일하고 이렇게 한 데 없어요. 제사도 이래 못 했습니다. 마을 잔치였죠. (마을 사람들이) 오먼 마구[모두] 먹을려고 하고, 담 밑에는 거지들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너이, 여섯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거지들도 잘 안 주면은 해꼬래[해코지]한다꼬 동네 사람 주기 전에 거지 먼저 밥상 채려가지고 떡 갖다줬어요.

1950년대 초 조부 회갑연 | 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재춘

붙들려가 대구로 전학을 갔어요

내가 안동국민학교[현 안동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병설중학교[안동사범학교 병설중학교, 1962년 폐교]를 들어갔는데 남학생이 두 크라스[클래스, 반], 여학생이 한 크라스입니다. 안동서, 경북 북부 지방에서 제일 좋은 데가 안동사범병설중학교라 그랬거든. 남쪽에서는 영천[경상북도 영천시], 북쪽에서는 제천[충청북도 제천시]서 통근 열차가 시발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안동병설중학교 사범학교에 다녔어요. 그렇게 멀리서 공부하러 댕겼는데, 내가 사범병설중학교에 가가지고 2학년 때 경상북도에서 최고 좋은 경북중학교[현 경운중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여기서 자꾸 체육도 하고 많이 돌아댕기니까 어머니가 공부 안 한다고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붙들려가 대구로 전학을 갔어요. 내가 건달들도 마이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 보니께네 '저게 놔두면 반건달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구로 보냈거든. 그런데 옛날에 경북중학교는 돈이 있어도, 재주가 있어도 못 갔어. 그때는 (안동에서) 경북중학교 다닌 이가 (거의) 없었고, 우리 학년에 딱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마뜰[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용상양조장 김기업 씨 아들인데 나하고 동기예요. 그 친구하고 내하고 둘밲에 없었어요.

전학을 가니께 한 일주일 전에 경북중학교 기말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지를 내한테 내놓더라고요. "함 답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해보니 모르겠어요. 내 실력이 40점도 안 나와. 그래가 학교 선생님들이

“야 안 되겠다. 한 해 묵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 그냥 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두 번, 세 번째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경북고등학교 시험에 합격이 되어버렸어요. 경상북도 경주[경상북도 경주시], 김천[경상북도 김천시], 안동, 요기서 경북중학교에 1년에 한 사람이 들어올까 말까 했어요. 경북중학교에서 경북고등학교는 한 70% 요래 들어갔는데 그기에 낑기 들어가뿠어. 그르이 집이나 선생이 놀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재주 있다꼬 우리 집에서도 날 인정을 해줬죠.

1956년 중학교 졸업

경북고등학교 야구가 전국 1등 다 했거든. 그때 야구가 굉장히 셌는데, 노는 시간 되면 공 던지고, 기계체조 하고, 테니스 치고, 축구하고 이랬죠. 운동을 좋아하지만은 우선 공부를 쫓으니께 운동할 여가도 없고 재미로 했는 거죠. 그때는 얼굴도 괜찮고 경고 모자 쓰면 여학생들 줄줄 따랐어요. 버스 타몬 아주머니들이 내만 쳐다봐요. 경고 뺏지[배지] 달고 모자 쓰고 앉았으면 내만 쳐다보거든. 그때는 모자를 꾸겨가지고 썼는데, 모자 위에다 촛물을 막 떨아자가지고[떨어뜨려서] 모자 모양을 우리가 따듬어가지고 맹글었습니다. 유행이 그랬어요.

우리 경북중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1년에 80명에서 130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들어갈 때는 88명인가밲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두 번 쳐뿠다가 떨어져 포기해 뻐렸지.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더라고. 우리가 드갈 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가 법대보다 더 셌어요. 전국에 32명 뽑는데 내가 붙나요? 안 되지. 그래가 두 번 해봤는데 내가 실수를 해뿠죠. 그때 서울대학교 경제과 나온 사람들이 장관이나 요직 안 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현 영남대학교] 두 군데가 2차인데[2차 모집 대학], 내가 1차에 경제과를 했기 때문에 2차에 또 경제과를 갔거든. 내가 드갈 때는 청구(대학) 경제과가 (있었고) 대구대학이 없었어요. 근데 그 경제과가 야간이라. 그래가지고 취직도 하고 댕겼으면 됐는데 다니기 싫더라고. 그래가 입학금만 없앴지, 뭐.

고등학교 시절

자전차 타고
눈물 줄줄 흘리고

내가 고등학교 가가 공부를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집안이) 망해가지고 날마다 돈 갚는다고 고마 우리 전지[田地], 임야, 산판[山坂] 다 팔아가지고 학비 대고 이자 돈 (댔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쫄딱 망하게 됐어요. 내가 학교를 드가고 하이께네 날 공부시키고 밥 멕이야 된다고 아버지가 날 따라와 가지고 대구에 국수 생산 공장을 채렸어요. 그때 국수가 최고 히트 칠 땐데 잘 안 되데요. 학교 매점에서 국시 삶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래가 납품 마이 했는데 공장을 채려 놔노이까 빚이 많아요. 그때는 이자가 많으면 7부, 12부까지 나갔습니다. 장사해가지고 이자 돈 주면 고마 딱 맞아. 원금은 못 갚고. 1학년은 어째 넘어갔는데 2학년 때부터는 내가 이자 주는데 바빴어요. 내가 국시 공장에 있는 자전차[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클 때는 책보도 없고, 하꼬[상자] 같은 거, 비닐, 이런 가방이 없어요. (돈을) 신문지에 기냥 싸가지고 돈 흘릴까 봐 막 뒤로 이래 감아가지고 자전차 타고 눈물 줄줄 흘리고 갔어요. 내가 이자 돈을 싣고 가면서 어린 마음에 마이 울었어요. 새벽에 가면 달도 없어서 캄캄한데, 돈 줄라니 아까워 못 주겠어. 이거 헛돈, 이자 돈(이잖아요.)

대구학원에 2년을 댕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날 공부시킨다고 돈을 어째 구했는지, 이자도 못 주

는데 (학원비를) 줘서 다녔어요. 새벽에 5시 반, 6시 반에 일라가지고 학원에 갔습니다. 들어가면 대 만원이에요.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공부를 하는데, 겨울 같으면 6시면요, 밤중입니다. 내가 한 1년 동안 세수를 하면서 코피를 흘렸어요. 코피가 막 벌겋게 세숫대야에 나와. 그래 공부했는데 공부는 머리에 안 드가. 빚이 많으니께 집안 고민을 하니까 내 머리에는 날마다 그것만 꽉 찡기가 공부가 안돼. 그이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올키 못했죠.

우리가 망할 때까지 다 망했어요

영덕[경상북도 영덕군]에 부잣집이 많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아 가지고. 근데 아는 사람이 "배를 한 채 사 놔 놓으면 돈이 많이 나온다." 이래서 할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영덕 가가 배를 한 채 사고 사람한테 맽겨놨는데, 1년이 있어도 소문이 없어. 여서 걸어가지고 영덕 가니께 배하고 사람을 다 잃어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마 할아버지가 마이 망했죠. 또 6·25 전쟁이 났는데, 대한민국에서 폭격 제일 심한 데가 안동입니다. 집이 한 채도 남은 게 없었어요. 요즘은 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올라갔지, 옛날에는 한옥 집에 소나무 비가지고 짓고 그래가지고 안동이 굉장히 누추했어요.

또 망할 때 되니까 집에 징조도 아주 옳찮은 게 자꾸 발생했어요.

옛날에는 담이 굉장히 길어서 한 100여 미터 넘게 사방에 쌓여가 있었어요. 담 우에 소깝[솥가지] 놓고 그 우에 날개 놨는데, 어느 날 부슬비가 슬슬 내리는데 그 우에 내 다리만 한 크다난 구렁이가 착 늘어지도록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뱀도 잡고 놀았는데 그걸 보니까 다리가 안 떨어져요. 증조모가 나와 보고는 정지[부엌]에 들어가서 반[盤]을 가져와서 물을 떠 와가지고 비는데, 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살림은 망하더라도 사람은 해치지 마소." 하면서 빌더라고. 그래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구렁이가 어데로 가뿟나 없어요. 그 후로 집이 망하더라고. 어머니 돌아가시지, 내 동생 죽지, 조모 죽지, 막 이래가지고 안어른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내가 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가 물 붓는 거 가르쳐주고 이래 해가지고 겨우 지냈습니다.

구렁이가 옛날에 보면 크고 오래된 집, 큰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집 지킴이라 그랬거든. 그게 나타나면은 징조가 별로 좋은 게 아니래. 그래 우리가 망할 때까지 다 망했어요. 어머니는 나 대학 보내가지고 군대 안 가는 기 소원이라 했거든. 옛날 어른들이 '논밭을 팔아도 군대는 안 보내야지.' 이래 생각했는데 내가 자원입대해서 군에 드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꾼이 군에 갈 때도 차비를 주는데, 내가 군에 가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차비 10원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한스러워가 날마다 울면서 내 생각 하다가 병이 좀 생깄는 것 같아요. 대구까지 와가 입원해서 내가 군대 가서 문병을 가고 이래 했는데 끝내 돌아가셨어.

그때 할아버지 명답이 하나 있는 게, “원래 망할 때는 인력으로 감당을 다 못한다. 되게 망해가지고 다시 흥해야 흥하지, 내려갈 때는 도리가 없다.” 이래. 망할 데까지 망했는데, 이제는 더 다칠 것도 없고 나도 그냥 살고 아이들 다 순탄하게 지금까지 키웠어요. 아들, 딸, 손자 다 건강하게 지내니까 2대에 걸쳐 가지고 병원을 한 번도 안 데려갔어요. 그 정도로 참 집에서 잘 거둬가지고 대체적으로 애들이 다 잘된 편이죠. 우리 친척들 서울, 대구, 부산 많이 나가 있지만 내가 안동에 이래 눌러 있는 이유가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술술 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래 주저앉아가 있어요.

02

규수를
하나 구해다고

· 고마 혼인이 돼버렸어

· 나는 와룡면장 줘도 안 해

·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 지금 웃고 이래 다닙니다

이재춘은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했다. 군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인근 안동 권씨 집성촌에 살고 있는 권정숙을 만나 스물다섯에 가정을 꾸렸다. 아내는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고 그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다. 이재춘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내 외투를 장만해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작지만 따뜻한 추억을 쌓았다.

고마 혼인이 돼버렸어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에 갔죠. 우리 드갈 때는 지원입대를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 있을 때 법관을 하던 이지형 씨라꼬 그분이 아버지하고 친형제같이 지냈어요. 이낙선[李洛善, 1927~1989, 전 상공부, 건설부 장관] 씨 동서 김흥국이 고려대학을 나와서 한양대학 교수를 했는데, 내하고 둘이 (그분이 써 준) 지원서를 가지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영천까지 갔어요. 가니께 장군이 사인을 한 거니까 제일 먼저 "이재춘!" 불러요. "예!" 이카니 "빨리 나와." 이러더라고. 그래가 붙들려가 간 기라.

논산까지 가가 밥을 주는데, 꽁보리밥이야. 그것도 군대에서 해놔 논께 하, 먹어 내나[먹을 수가 있나]. 암만 내가 어렵게 살았더라도. 그래가 두 때를 굶으니까 눈이 쑥 드가 뿌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금방 군인들이 옷을 입고 훈련받던 걸 벗어놓고 나갔어요. 그 옷을 내가 되접어 입어야 되는 기라. 입으니까 빤스가 축축한데, 빤스 기워 놨는 데에 이가 보리밥만 한 게 구불구불거리더라고. 손톱으로 이를 칠라 하니까 군화 신었는 사병이 와가 궁디를 마 차뿌니 그대로 꼬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빤스를 그냥 입었는데 이틀 자고 나니 이 이가 내 이가 돼. 구불구불 기는 게 남의 이 같지 않더라고. 근데 이를 잡을 여가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 그래 지냈어요.

내가 군에 갔는 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니께 (제대하고) 집에 들어와보니 고마 엉망이 돼있거든. (집안이)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구체 없어[어쩔 수 없어] 내가 장개[장가]를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장개를 갔죠[1965년, 25세]. 나는 그때 대구 가가 있었는데 정말 99% 촌으로 장개를 가기 싫었지. 근데 우리 집 일꾼은 둘이 있지, 할아버지 영만하시지, 동솥[작고 오목한 솥]에 가가 밥 해가지고 먹고 영감 빨래해주려고 올 이가 어디 있노? 내가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안동에서 문중에 다 출입을 하고 이러니께 유명한 동네에 "내 처지가 이리되어 있으이 규수를 하나 구해다고." 이래가 누구 집에 딸, 누구 집에 딸, 여섯 군데가 얘기가 됐어. 도기촌[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의 옛 지명]이라고 거가 안동 권씨 제일 집성촌이야. 거기서 봉화닭실[닭실마을, 경북 봉화군 봉화읍] 권씨들이 다 갈려[갈라져] 나갔는 집이라. 그 마을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깝거든. 할아버지가 "여섯 군데가 처녀가 좋다 그러이 한번 가보자. 가까운 데부터 가자." 그래 갔는데 첫날에 고마 결정해져버렸어. (웃음) 이상하게 싫지도 안 하고 고마 혼인이 돼버렸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문서 쓰고 어른들끼리 해가 결정이 나뿌니께네 뛰도 걷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야.

장모가 우리 일가거든. 장모님은 예안 온혜[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이병린[李炳麟, 1892~1936, 독립운동가] 씨라고 만주 가 독립운동가 하던 분 따님이야. 우리 일가지만은 참 훌륭한 집이래. 장모가 내가 가니께 좋아가지고 말 놓고 막 덤벼드는데 어쩌나. 뭐 그래 됐죠. 거기도 증조부가 진사를 했어. 그랬는데 자식이 없어 가지고 장인이 양자를 들어

갔어. 진사 된 어른이 후손이 없으니까 득세를 못 했지. 근데 아주 훌륭한 집이래.

나는 와룡면장 줘도 안 해

우린 약혼식도 못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약혼사진 찍고 장인하고 장모하고 따라와가지고 음식점에서 밥 한 그릇 사 먹었는가? 그런 기억이에요. (결혼식) 이틀 전인가 삼 일 전에 (처가에) 갔는데 동네 청년들이 한 30명이 모이가지고 신랑 뚜드리 패고 닭 훔쳐가 오라 그래. 예법이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서이가 나섰어. 갔더니 마당에 걸금[거름]이 있는데 서이가 조선옷[한복] 입고 허리띠 풀고 서가지고 소변을 보는데 호랑이가 울어. "왁"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리띠도 못 매고 방으로 쫓겨 드갔어. 나도 드가고. 닭이고 뭐고 해산을 하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는데 겁이 나 못 내려가. 그래서 처갓집에서 타작했는 볏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내려갔어. 한두 명이 가는 기 아니고 동네 (청년들) 한 30명이 불 따라가지고 집까지 내려갔으니께네 장관이지. 그래가 장모가 "하, 큰 인물이 난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께 이적지 살았어.

그리고 또 장개를 가가지고 집에 올라는데, 택시를 부를라 그르니께네 안동에서 택시가 없어가 부르지를 못했어. 그런데 처가에서 헌 자전차, 터덜터덜거리는 걸 타고 가라 그래가지고 조선옷을 입고 그

걸 타고 내리막을 막 가는데, 그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좋죠. 요새는 자가용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때는 자전차가 동네에 한 대 있을까 말까였어요. 옛날에 안막[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 도산서원 가는 재[고개] 내려갈 때 만구[순전히] 자갈 마당이었거든. 자전차 타고 내려오면 내리막에서 이거[페달] 안 돌려도 촤아악 내려가거든. 그래 "어이~ 어이~" 친구들이 부르면 "나는 와룡면장 줘도 안 해." 카고 내려가는 기분이 그쿠[그렇게] 있었다고[좋았다고].

1960년대 중반 약혼사진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아내[권정숙(權貞淑), 1942-2024]가) 시집오고 그 이튿날 밥하러 나가고 빨래하고 하니께 내가 미안치. 그래서 우리 집이 안정이 됐죠. 그 후로 애로사항이 없이 지냈으니까. 근데 하나 신기한 게 우리 식구[아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집와 그 이튿날 밥을 하는데, 축담 위로 올라가 다리를 얹어가 쌀 씻잖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새가 돼가 훨훨 날라댕겼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그래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새벽인데 올라가 쌀을 씻는데, 비둘기가 정지에 들어와 어깨 위에 탁 앉았어. (아내가) "여 보랜데이. 비둘기가 앉았다." 이카는 기라. 그래 내가 호롱불 놓는 창문으로 내다보니께네 날아갔어. 그니께네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비둘기로 환생을 해가지고 시집와 첫날부터 고생하는 며느리 찾아 왔는 거 같아. "니 욕본다." 이래가지고 날아왔는 것 같애. 정말 신기했지.

내가 약혼식도 올키 못 하고 결혼식도 예절만 했지 올키 못 해가지고, 월급을 타서 (아내) 옷을 다시 사 입히가지고 강원도 갔지. 그때 안동에서 일류 부잣집에 양품[洋品] 파는 여자가 있었거든. 여자들이 이래 들고 (머리에) 이고 댕김서 (판매를) 했는데, 일제 바바리코트를 두 나[벌] 가[가져] 왔어. 그때는 외래품 가 오면 뺏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알아가지고 "하나 날 주소." 해서 내가 기념으로 하나 샀어요. 근데 바바리코트 하나에 두 달 월급을 줬어요. (아내가) 촌에서 커가 자기 옷도 별로 없고 시집와 봐야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

지고 대우도 올키 못 하고, 이부자리나 옷을 하나도 옳은 걸 못 해 줬어요. 그래 내가 월급 한두 달 털어 옇었지 싶어요.

어린애도 없고 할 땐데, 그걸 입혀가지고 설악산을 가는데 참 신기하죠. 그 기분은 얘기를 못 하죠.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중고차 털털털털거리는 걸 사가지고 강원도를 갔는데 내가 운전했죠. 강원도까지 가도 운전할 때 딘[고된] 동[걸] 몰라. 그래 갔는데 자고 일라가지고 차를 탈라 그르니께네 앞에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뻥구 났어. (웃음) 타이어 갈아야 (되는데) 알아야지. 그때 호텔에 세단, 좀 고급 차 타고 온 기사들이 주인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가 있었거든.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니께네 처량한 게라. 그래 이것 좀 어째 해 달라 하이까네 한 사람이 오디마네[오더니] 요래 요래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차 뻥구 났는 걸 갈아 봤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 해봤다니까.

지금 웃고 이래 다닙니다

어머니가 내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우리 산에 (묘를) 썼는데, 한참 후에 꿈에 우리 종손이 나타나서 "날 따라온나." 이래. 그래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께네 어른이 없어. "어데 갔노?" 어리(둥절)해서 깼는데, 바로 가 보니께네 (실제로) 꿈꿨는 (자리에) 바우[바위]하고 소나무하고 섰는 게 딱 고대로라. 유명한 풍

1969년 아내와 설악산 여행

1973년 가족사진

수지리사한테 “내가 꿈꿨는데 한번 봐주라.” 그래 데려갔더니 “진짜 꿈꿔가 뫼를 찾았나?” 이래.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나? 우리 어머니 (묘를) 우리 산에 써놨는데 내가 왜 괜히 옮기려고 하노?” 이카니께 고개를 찌울떡 찌울떡 거리더니만은 대한민국에 임금 능도 꿈꿔가지고 자리 잡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면서 무조건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이장을) 했죠. 내가 꿈을 꿔가지고 뫼[묘]를 세 군데를 유명한 데 썼어요.

또 아버지 산소 했을 때는 안동대학 총장도 오고 안동에서 한 2~300명이 와가지고 뫼 쓰는 데 구경을 했어요. 복판에 관을 하면[넣으려면] 직사각형 판을 파잖아요. 사람이 2~300명 있는데 두꺼비 이만한 게 들어오더라고. 착 널친께[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여 어디서 나왔노?” 막 난리제. 사람이 빽빽하게 섰는데 땅을 파고 들어온 것도 아이고. 그래 놀래가지고 그놈을 삽으로 떠가지고 우리 자형이 저 짝에다 갖다 놓고 왔는데, 두꺼비가 돈이잖아요. 좋은 길조로 보고 있었는데, 3일 후에 우리가 삼우제를 지내고 오는데, 우리 큰아이가 “아버지, 아버지.” 쿡쿡 찌르더니 이 보라 그래. 보니께네 (두꺼비가) 목을 이래 내가지고 혀를 낼랠래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줄 거는 없고, 이런 종이(컵)에 탁주 먹고 난 찌끄래기 좀 있어서 그걸 입에다 갖다 (대주니까) 햇바닥을 내서 춥춥춥 빨아먹더라고요. 그래가 무더운 날 애먹는다고 솔가지를 하나 가지 쳐가지고 그늘집 지어놓고 내려왔죠. 며칠 후에 하도 이상해 가보니까네 흔적도 없어. 꿈에 산소 터를 발견한다든가 (하는 게) 연거푸 한 서

너 번 내한테 나오는 거 보니께네 내가 어느 정도 잘 풀리겠다 카는 자신이 서더라고. 내 아들 서이, 손자 여섯이 기르면서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지냈어. 내가 순탄하게 오니께네 지금 웃고 이래 다닙니다.

03

언론 계통에 사무 머무르게 됐어요

· 가 그래 놔두면 안 된다

· 기자로 전직을 한 거야

· 뒤늦게 대학교 졸업이라고 붙이는 거야

· 안동에 말하자면 큰 힘이 됐지

이재춘은 고향 안동에 정착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한동안 농사에 전념했다. 그러다 안동군청에 들어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언론계로 진로를 바꿔 안동MBC를 거쳐 대구매일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뒤늦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했고, 안동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안동문화원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가 그래 놔두면 안 된다

내가 촌으로 장개가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안동 오니 뭐 할 게 있어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농사짓고 집 돌보고 있었죠. 난 내대로 집에 가 할아버지한테 한문도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정신이 사나와 가지고 공부가 하기 싫었어. 남았는 건 농토니까 일꾼을 둘 데리고 농사를 짓는데, 할아버지한테 "집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도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옛날에 안동 집값이 요새 말하면 헐하고[값이 싸고], 일등 논은 비싸니까 싼 것부터 팔았다 그카시더라고요. 농토를 가[가지고] 있으면 농토 값 오르지도 않고 애를 먹고, 날 공부시킨다고 대학까지 6년을 가 있었으니까 또 애를 먹었죠. 그래서 제가 군에 갔다 와가 농사짓기 시작해가지고 전답을 불캈는데[불렸는데], 예안 산을 마이 팔아서 농토를 사가지고 동네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장만해 놨죠.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취직할 데가 없잖아. 안동이 기업체가 없고 공무원밖에 없었는데, 한 2년 가까이 있었을 거야. 문영각이라고 안동 군수 하던 분이 날 아시는 분인데, 내가 촌에 있다 카는 얘기를 들으니, "가 그래 놔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소사[小使]를 보내서 군(청)으로 오라 그래. 내가 공무원 안 한다고 그랬더니 또 와룡 면장을 보냈어. 그때 면에 자전거밖에 없었는데 타고 온 거야. 나한테 군에 오라 그러고 면(사무소)에 오라 그라니께네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남들은 소하고 전지하고 팔아가 취직하는데 왜 오라 그라는

데 안 가노?”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면에 갔지.

가니께네 면 개발위원을 했거든. 그기 뭐냐면 아버지 하시던 면의원 자리라.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안 한다.” 하니 그럼 군에 와 있으라 그래. 군에 가 있으니께네 (공무원) 시험 공고가 나더라고. 공무원 시험 치는데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안동시(청)에서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공무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공무원이 지금같이 서류 만지는 것도 아니고, 길가 자갈 깔고 가로수 비고 보리 빨리 비라고 독려하러 댕기고 이리할 때인데, 그걸 어찌 하노? 내 농사도 못 하는데 내가 안 할라 그랬지. (일이) 적성에 어데 맞을 수가 있나. 그때 초가집을 기와 이을 때래요. 우리가 동원돼 가지고 남의 집 기와 이으러 댕겼지.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한다니께네. 그래서 시에 드가니까 대번 날 보고 행정과나 회계 좋은 데 앉힐라고 그러는데, 시장이 공보실에 가 있으라 그래. 공보실에 가면 실장 대행하는 거지. 그니께네 요새 얘기하면 시장 대변인이 됐어. 기자, 형사 (대하고) 대외관계 다 하고, 또 행사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맡아가 했죠.

기자로 전직을 한 거야

내가 시에서 온갖 정보하고 기자들 상대를 하다 보니께네 민주(공화)당 때 안동 국회의원하던 김대진[金大鎭, 1917~1985, 정치인] 씨가 안동 MBC 사장으로 왔는데, 나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동)

MBC에 들어갔어요[1972년 32세]. 김대진 씨는 집에 어른[아버지]하고 외삼촌하고 친구래. 그래 나를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방송국 기자로 전직을 한 거야. 붙들려 갔는 게 고마 이렇게 언론 계통에 사무 머무르게 됐어요. 그때 MBC만 해도 안동서 제일 좋은 직업이었거든. 고맙지, 뭐. 내가 19만 원 공무원 월급 받을 때 65만 원 받고 MBC 갔거든. 그때가 공무원 월급 한 3배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방송국 가보니께네 방송국 체질이 아니고, 내가 안 맞다 카는 걸 느꼈어. 안동 말이 억세니께네 방송에 내레이[내레이션]가 안 되더라고. 내 말이 토속 말이라가지고 방송에는 내가 봐도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아, 내가 방송국은 안 맞다.' 그래가지고 대구 매일신문으로 갔어[1975년 35세].

대구 매일신문사 거는 경북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한 3분의 1이 돼요. 한 4~50%가 우리 경고 동문들이 가 있었어. 그런데 노조에서 "다른 이는 3년이면 인사이동하는데 왜 저 사람은 평생을 거기 있구로 하느냐? 다른 데로 보내라. 한 자리에 30년 있는 거는 인사이동에 위배된다." 그래 하는 거야. 그래 내 노조에 가가지고 "누구도 지원 해가 안동 오는 놈 없다. 나오라 그러면 내 다음에 사표 낼게." 이란께 노조에서 날 봐줬다니까. 대구 매일이 얼마나 엄한 덴데, 내 시말서 한 번 쓴 일로 없고 인사이동 안 당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대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했지.

내가 (기사를) 썼는 것만 스크랩을 쫙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기사가 아깝잖아요. 좋은 게 많다꼬. 그러니께 내 했는 거 이렇게 딱 해

놨는데, 만약에 내 손자나 아들이나 보면 흉이 될까 봐 싹 없애버렸어. 귀중하게 한 30년 오려 붙였는 거 다 없애버렸어. 30년을 스크랩해 놓았는데 얼매나 많겠어요. 그런데 잘 쓴 게 80%가 되더라도 이웃집이라도 누구든지 애먹인 거 한 번씩 써뿌면은 흉이 되잖아. 두고두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기자 가지고는 얘기 잘 안 할라 그래. 요새 와가 좀 아수운데 미련은 없어.

뒤늦게
대학교 졸업이라고 붙이는 거야

회사[안동MBC]에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 언론인 중급반을 보내줘 갔는데[1973년 33세],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종로에 있었나[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중급반이라고 교육을 6개월간 아침저녁으로 해가지고 하루 6시간씩 받아. 국비로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한 1~2년 그 제도가 있었는가, 마이 안 했어. 방송국, KBS, MBC, 중앙지, 그다음 지방지에는 대구 매일하고 부산일보빽에 안 드갔어요. 제일 중년 엘리트 기자만 뽑아가지고 서울대학 신문대학원에서 교육을 시킨 거야. 데스크 보고 편집국장하고 요런 사람들만 모있거든. 진짜 눈에 빛깔이 날 정도로 반들반들거려. 80%는 우리나라에서 이름 대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참 A급이죠. 그때 언론인 중급반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어느 신문사, 방송국에 전무 이상, 상무 이상, 사장까지 전부 다 회사 중역 됐어요.

1973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기자 재교육 이수 기념

그리고 내가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다녔어요[1988년 48세]. 우리 안동 북부 지역 기관장들만 해서 대학교 못 나온 사람들 한 20명을 가르쳤는데, 대구서 출장 와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말하자면 그 지역 유지들, 군수들이 와가지고 (배웠어요.) 또 기능보유자가 되니까 대학교 간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 전통예술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졸업했어요[2003년 63세]. 뒤늦게 대학교 졸업이라고 붙이는 거야. 전통문화대학은 내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름 자체가 국립이고 학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늦게 학위를 따서 스스로 체면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간문화재 격에 맞다고 해가지고 전통예능과[전통예술학과]에 갔어요. 기능보유자의 전통과목을 공부해서 학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이 큰 영광이고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고마움을 느꼈지요.

안동에
말하자면 큰 힘이 됐지

저는 원 직업이 있었지만, 신문사 가가지고 사장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JC[한국JC특우회]도 했고, 체육회도 했고, 문화재도 했고, 다 거머쥐고 했어요. 경상북도에 그때 시가 7개인가 있을 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하면은 안동이 사무 5~6등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경산[경상북도 경산시]에 대학교가 많은께 선수 많죠. 포항[경상북도 포항시], 경주[경상북도 경주시], 김천[경상북도 김천시] 이러니 잘돼야 우리가 5등 하는 거야. 그런데 (안동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 시장하고 부시장이 나한테 "현직에서 좀 맡아주소." 이래 했거든. 하도 그래가지고 상임부회장을 내가 맡았어[1990년 50세]. 4년을 하면서 경상북도 시군 대항을 4번이나 연승해버렸어요. 4연패를 하니까 각 지역의 사무국장, 부회장들이 부정 선수를 사가지고 저래 했다 그래. 안동이 어째 1등을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안동 출신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체육선수들이 대학교 전국에 다 가 있었고, 전부 다 고향에서 뛸 수 있거든. 그니께 얼마씩 주고 선수로 발탁해서 옇어놔노니 1등을 한 거지, 부정 선수는 하나도 아이거든. 나는 예를 들면 테니스 선수가 부산시청에 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청에 얘기해가지고 "나 이 선수 이틀만 결근시키게 해 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오잖아. 안동서 고등학교 댕길 때 전국 1등한 아들 싹 다 뽑아가 있는 거 다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께네 부정 선수가 아니지.

그런데 안동 젊은 사람들이 "치고받는 거만 1등하면 되나? 안동이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1등을 해야 되지." 이런 비평이 나오기 시작했어. 체육대회 4연승 하고 자랑을 못 했어. 그래 했는데 당시 (안동)문화원장이 내한테 인계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날 보고 문화원장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화원장을 했는데[2007년 70세] 자랑을 하기가 좀 그래 그렇지, 행사를 마이 했습니다. 도산별과[2], 지역에서는 처음에 과거 시험을 도산서 했거든. 그거 살렸지, 내방가사[3], 사투리 경연대회 했지, 여성 한마당 축제 했지, 찰떡치기 했지, 하여튼간 과목을 디게 많이 늘렸어요. 취타도 맹글고. 안동에 옛날에는 악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무슨 행사하면 선도해 가지고 탕탕 치고 나가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취타대를 맹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동문화원장을) 연임해가지고 8년을 했거든. 내가 기자하고 '기자로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래 지냈는데, 문화원장하고 나서는 완전히 안동에 말하자면 큰 힘이 됐지. 좋고 마고지. 문화원이 파워를 가[가지고] 있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유림들 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반대한 이가 없었어.

아마 대한민국에서 안동문화원장이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회장[2015년 75세], 대한민국의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2016년 76세] (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에요.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을 해가지고

2 도산별과는 1792년 정조가 퇴계 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도산서원에서 행했던 시험으로, 당시 지방에서 유일하게 치른 대과(大科) 시험이다.
3 내방가사는 조선 시대에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짓고 향유한 가사(歌辭) 문학의 한 종류이다.

서울 올라가니까 안동 출신이 경북문화원연합회 회장했는 (이력으로) 대번에 고마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앉혀버리는 거라. 그때는 각 시군에 내가 아는 문화원장들이 많았으니께 반대하는 이가 없더라고. 기자로서도 그렇고 내가 사회 출입을 많이 하니까 경주, 김천이고 지방에 가면 다 알지. 또 왜 그러냐면 내가 JC특우 부회장을 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타지방하고 연결이 많이 됐죠.

내가 시의회에 자문위원장을 두 번이나 했고, 시에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도 마이 했어요. 또 (2012년에) 경상북도도민상을 받았는데, 문화상 이카면 참 최고 컸습니다. 대구 가가 체육관 어데 제일 큰 데서 (받았어요.) 문화원, 또 차전놀이 가지고 활동을 마이 했고, 봉사 활동은 JC 하면서 마이 했으니께네. (2017년에) 금오대상(을 받았는데,) 우리 경상북도, 대구하고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상입니다. 금오회라 그러는 건 대구 경상북도에서 기업 하는 A급 사장들만 삼십몇 명이 하는 회가 있어요. 우리 회를 해가지고 1년에 상을 하나 주는 거죠. 그래 하다 보이 이래 늙어버렸어요. 차전놀이 이것도 중하지, 문화원도 생각도 안 했던 거 8년 했지, JC 부회장 했지, 뭐 이라다 보니께 다른 거 넘어 볼 데가 없어.

04

굉장히
고귀한 직함이잖아요

· 이게 지정될 때까지 100% 그분 노력이라

· 그것도 내 운명이지

· 부끄럽지 않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민속놀이는 없다

이재춘은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안동차전놀이와 인연을 맺었다. 안동차전놀이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과정에서 초대 보유자인 김명한 선생을 도와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 이후 전수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1991년 51세의 나이로 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게 지정될 때까지 100% 그분 노력이라

초대 우리 차전놀이 회장이 안동 출신인데, 김명한[金明漢, 1902~1989, 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 초대 보유자] 씨, 안동의 거부인데 대구 경북중고등학교 2기생이래. 내가 40회거든. 38년 위니께네 나이 굉장히 많으셨죠. 나이 차도 많고 선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셨어요. 체구가 우리 한 4배쯤 돼. 대구에서 안동까지 걸어 댕기고 했다니까. 그때는 안동에서 대구 가 공부한 이가 없어. 그리고 경북대학교[당시 대구의학전문학교] 의과대학 나왔으니께네 병원을 채렸는 거지. 재생병원 원장 했잖아. 또 이 어른이 안동 김씨 부자래. (안동에) 안동 김씨, 안동 권씨가 씨족이 제일 많거든. 그러니께네 (사람도) 마이 알았지. 김명한 씨는 그때 안동에서 일 안 되는 게 없어. 경북중고등학교 나왔지, 의대 나왔지, 돈 많이 있지, 안동 김씨지, 누가 당해냅니까? 그때는 김명한 씨 나이에 대학교 드간 놈도 없어. 있는 건 일본 가가 대학 했지.

안동에서 그분만치 공부하고 더 훌륭한 이가 없어. 그러니 차전놀이 발굴할 때 그 어른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어른 친구들이 고증인으로 들어와서 서류를 만들었거든. 그 서류를 내가 다 만졌어요. 차전놀이가 그래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국가무형유산] 됐어[1969년 안동차전놀이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게 지정될 때까지 100% 그분 노력이라. 안동차전놀이는 이 어른 나이에 아는 사람도 없고 공부를 그리 한 사람도 없어. 중앙대학교 민속학자 임동권[任東權, 1926~2012, 민속학자]이 있잖아요. 이 어른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에 있을 때 사람 만내고 고증하는데 김

명한 씨 집에 와가 물어가 가요. 교수라도. 우리나라에 민속학 최고인 임동권 씨가 안동 오면 이 어른한테 배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안동 민속이, 안동 문화가 발굴된 거는 김명한 이 어른 땜에 된 거예요.

보통 민속이라 그러는 거는 고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증인이 김명한 씨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없어. 다 동갑이고 그쯤 되거든. 그래 돼놔노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를 할라 그래도 김명한 씨보다 다 나이 적고, 그때 어데 촌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 거기에서 틀렸다 반박할 이가 하나도 없어. 그때 마구 다 "내가 고증인이다." 카고 선생들이 마이 나왔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나와서 "내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 차전놀이에 대해 내가 박식하다."

김명한 | 왼쪽에서 두 번째

이래가지고 문화재청으로, 문화부로 진정을 하고 이랬어. 그때 김명한 씨하고 내하고 "고증 대라. 증거 대라." 막 하니께네 꼼짝을 못 했잖아. 김명한 씨한테 걸리가지고 애를 묵었지. 우리 차전놀이는 김명한 씨 이 어른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만침 컸다, 이래 봅니다.

그것도 내 운명이지

내가 시에 있을 때 문화 담당을 해가 있었거든. 공무원 하는데 문화재 업무가 내 업무야. 그래 내 손을 안 거치면 서류가 안 되는 거라. 이 어른[김명한]은 노인이 돼가지고 서류를 맹글 줄을 몰래. 내가 시에서 담당자니께네 그거 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맞차가지고 올렸지. 그래 선배니께네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귀찮더라고. 전화도 (오면) 없다 그래라 그니께네 시장한테 막바로 전화해가 "가 일부러 안 받나? 좀 보내다고." 하면 시장이 이 어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밤에 야근하더라도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시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쩌노? 그래가지고 시장 말을 듣고 구체 없이 갔는데, 사무도 옛날에 김명한 씨 집에서 하고, 처음에 할 때는 갱지도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시청에 가가 들고 온 거 가지고 썼지. 갱지 살 돈도 없고, 연필이 하나 있었나. 볼펜이 없어가 사무실에서 내가 가 오고 이랬죠. 시장이 날 봐주니께네 거기에서 두 가지 업무를 보구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공무원 다른 이는 하라 그래도 못해. 공무원 일 해야 되지, 남의 집에 와가 그런 거 하고 있나? 나는 시에서 내 담당인께

서류를 내가 다 맹글어 가니께네 했던 거고.

그런데 이 어른이 내 이름을 거 넣어 놨다고. 나도 모르게 전수생으로 문화재관리국에 날 신고를 해 옇어 뻐렸어. 그래가 한 몇 달 하다 보니께네 "니 통장에 돈 드갔다." 그래가. "모르는데요." 그러니께 3만 원씩 들어왔다 해.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수생이라 그래가 한 달에 3만 원인가 2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뿠더라고. 그걸 세 번인가 모르고 옇어 놓으니, 돈을 받아가 치울라니까 '에이, 몰따[모르겠다]' 그래가 시작한 게 내가 여 발을 붙있어요. 돈을 몇 달 받으니께네 마음이 그렇게 (쓰여서) 그때부터 차전놀이를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는 거야. 그 덕에 내가 이만침 지정이 돼가 인간문화재 돼가지고 있는 거지[1991년 51세 안동차전놀이 보유자 인정]. 참 고맙기는 그지없이 고맙지. 그래가지고 인연을 맨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 운명이지. 덕 본 것도 내 운명이고.

그런데 그때 차전놀이 누가 할라 그럽니까? 솔직히 대단한 것도 몰랐어. 요직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관심이 없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는 나라에서 월급 이외에 다만 3만 원이라도 전수비를 주니까 그걸 받아서 어떤 자극이 됐는가, '해야 되겠다.' 카는 거가 있었고, 둘째는 내가 후보자가 돼서 이수생을 하나 뽑아가 사무를 보일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할라 그래요. 그래 사람을 고르고 하다 보니까 차전놀이 업무가 굉장히 내한테 치밀하게 관련이 되더라고요.

(다들) 사무국장을 안 할라꼬 해서 사람을 구하는데 있어야지. 그래 시에 "할 사람이 없다. 시에서 하나 선정해 주시소" 하니께네 "우리 (직원) 하나 데리고 가소. 임 국장[임규혁, 현 전승교육사], 시 직원인데 함 데려가면 좋겠다." 이래. "아, 그래 사람이 인물 좋다." 그래가 데려와서 지금까지 하게 된 거야. 우리 사무국장은 시청 안에서 제일 입 무겁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요청해가지고 뽑아가 온 겁니다. 그래가 저 사람도 한 30년 여서 컸어요. 시청에서 공직 하면서 겸직했어요. 안 그러면 유지 못 합니다. 요즘은 월급을 주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요즘도 올키 안 줘요. 여직원 하나만 최저임금 주고 사무국장은 문화재청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시에서 좀 얹어가지고 주죠.

부끄럽지 않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수자가 됐을 때에는 책무감이 많잖아요[1980년 40세].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책무감 때문에 정신이 팔렸고, 둘째는 10원도 못 받다가 이수자 되면 그때 6만 원인가 얼마 주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나랏돈 먹는다 그런 게 수운 게 아니거든. 고맙고 가치를 느끼게 되는 기라. 그리고 후보생[보유자 후보, 1989년 49세] 되니께네 위치도 그렇고 남 만냈는데도 그쿠 부끄럽지 않고, 그다음에 후보자에서 기능보유자가 딱 되면 책임감이 돌아오거든. 그때부터는 수당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어쩌든지 부끄럽지 않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책무가 딱 몸에 배이니까 전체를 매달리게 됐

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타이틀 자체가 인간문화재라고 하니까 그 직함이 굉장히 고귀한 직함이잖아요.

옛날에는 기능보유자 밑에 후보자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인간문화재 후보가 되면은 하자가 없으면 다음 차례는 자기 차례거든. 후보자를 보통 둘 정도 해놔요. 나이대로, 오래한 순번대로 하는데 바로 내 우에 후보자가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었는데, 그분도 김명한 씨 돌아가시고 2~3년 있다 돌아가셔뻐렸어요. 그러니께네 차전놀이에 대한 책임이 전부 다 내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차전놀이를 제가 감독을 했죠. 예능보유자 카는 이 타이틀, 인간문화재라는 타이틀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고 지금까지 있어요. 보유자가 되고 나서 책무가 무거워지니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쏟았어요. 시, 도청에까지 혜택을 받으니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죠. 또 요새 어떨 때 이래 생각해 보면, 늙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전승지원금) 주는 데가 없잖아요. 나라에 고맙고, 또 김명한 씨한테, 그때 애를 먹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니 '참 고맙다, 내한테 은인이다.' 이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민속놀이는 없다

1922년 마지막 (차전)놀이를 하는 사진 장면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가 책자 맹그는 데나 모든 홍보물 제작할 때 이 사진을 마이 쓰

죠. 최종 라스트[마지막]의 광경 고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 때 일본 사람들이 못 하구로 해가지고 차전놀이가 중단이 됐는데, 이거 했을 때[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을 때]는 차전놀이가 언제 중단이 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마지막 우리가 행사했다." 이래가지고 그 사진을 돈 주고 샀어요. 지금 우리 차전놀이가 행사를 한 게 70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니께 72년도쯤 돼가 사진을 구했어요. 임하댐[경상북도 안동시반변천] 보조댐에서 포진[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까지 고 사이 도롯가에 집이 쭉 있잖아요. 안동군 임하면 거기서 구했어요. 여기[사진]에 젊은이들은 일꾼도 있고 마을의 청년들도 있는데, 그때 인간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이고 기능자들(도 없으니) 지도하는 사람들은 마구 양반들, 갓 쓴 사람들이라고. 이래라저래라 다 시킨 거지. 그러니께네 그 동네에서 핵심 인물은 전부 다 옆에서 지휘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저[차전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 전에는 일반인들이 동네별로 (참여를) 했어요. 옛날에는 동원되는 사람들이 유림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놀이를 하면은 양반이 (아니라) 쌍놈이 한다 이래 생각했는데, 차전놀이만은 그 지역에서 젊은 유림들이 마이 참여를 했거든요. 사람이 없잖아요. 일꾼이 한 동네 가면 다섯, 너이 이래빽에 없지만은 유림은 60집, 100집 있으니까 전부 유림에서 옵니다. 길안[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에서 나오면은 임하[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동[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용상[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여기서 부녀자들이 적을 꿉고 술을 가져와가 길에 섰어요. 멕여가지고 보내니라고. 그르니께네 옛날에는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총동

원이 됐죠. “이기야 그 해 풍년이 된다.” 이런 미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지역민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안동 시민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차전놀이에 (옛날에 참여)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기 있었다 카는 군민들이 없었어. 그런데 김명한 씨가 많은 걸 발굴해가지고 이리 맨들어가 했거든요. 시민들 호응은 나쁘진 안 했어요. 그래 유지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도비[道費]하고 시비[市費]하고 받는 데서 이기[안동차전놀이가] 컸죠. 그때는 해마다 체육대회, 운동회 하면 차전놀이가 마지막 장식을 했어요. 차전놀이가 필수적으로 해줬거든. 대한민국 민속 축제는 몇 군데가 있는데 역사가 제일 깊은 민속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 안동이에요. 어느 지방에 가도 이렇게 (인원 동원) 많은 데가 없어요.

이게 발굴돼가 66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으로 김명한 씨가 차전놀이를 옇었어요. “안동에 이런 좋은 놀이가 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민속놀이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했어요. 그때 공무원이던 내가 담당했거든요. 그걸 참여하는 서류 맨들고 보고하는 모든 건 관에서 해야 되잖아. 내가 실무자니께 뒷바라지를 다 했죠. 참가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거든. 그리고 (67년에) 부산에서 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다시 나가서 문공부장관상[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어. 그리고 (68년에) 대전에서 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세 번까지 나가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2번, 3번 나간 민속이 거의 없습니다.

05

동채라는 건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 안동차전놀이의 전개 과정

· 내가 동채에 올라가 탔는 게 많아요

· 옆으로! 돌아라! 좌로!

· 차전놀이가 어렵다 카는 걸 몰라요

· 기양 이래 쫓아댕기면 안 돼요

· 동채에는 쇠가 하나도 안 드갑니다

· 이거 화합 안 하면 안 되죠

· 그게 변해, 변해 온 것이 지금의 동채에요

이재춘은 안동차전놀이 보유자로 인정되기 전부터 행사 때
동채에 올라타는 대장 역할을 해왔다.
대장을 맡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로 많은 이들이 원했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대장의 역할은 이수생과 전수생들에게
물려주었다. 초대 보유자인 김명한 선생이 강조했던 협동, 단결,
화합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지금도 그 정신을 후배들과 함께
이어나가고 있다.

안동차전놀이의 전개 과정

① 발의

추수가 끝나면 각 편의 원로들이 모여서 차전놀이의 거행 여부를 의논한다. 거행하기로 결정하면 상대 편에 통고하고, 대장과 도감을 뽑는다.

동채 싸움의 거행 여부를 의논한다.

② 체목 선정과 벌목

체목으로 쓸 곧고 굵기가 고른 참나무를 구해 산신과 나무에 고사를 지내고 벌채한다. 이날로부터 차전놀이 당일까지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교대로 밤낮을 지킨다.

동채목 선정

동채목 운반

③ 동채 제작

정월 12일이 되면 동채를 만들기 시작한다. 먼저 체목 5m와 4m 90cm 2개를 준비해 X자를 만드는데, 밑변은 2m 40cm 정도 벌리고 위에는 90cm와 80cm 정도 위치에서 X자로 걸친다. 그리고 밑둥 아래 부분에 가르새를 일자로 걸치고, 각 체목 밑둥으로부터 다른 편 체목으로 가르새를 X자 형식으로 걸친다. 중간 가르새로부터 80cm 정도에는 발판을 만든다. 가르새와 울림대를 끼우고 나머지 부분을 다 조립한 뒤에 준비된 끈으로 가르새와 울림대를 견고하게 묶는다.

동채목 머리를 서로 겹쳐 놓는다.

동채목에 가르새를 연결한다.

가르새를 묶은 모습

완성된 동채

④ 놀이꾼의 편성

차전놀이의 인적 구성은 대장, 머리꾼, 동채꾼, 놀이꾼, 동채의 좌우와 뒤를 따르는 각 편의 주민들로 이루어진다. 머리꾼들은 맨 앞에 1인, 그 뒤에 2인, 그 뒤에 3인 등의 순으로 마치 피라미드와 같이 동채 앞에 배치된다. 동채꾼은 직접 동채를 메고 대장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서 앞채꾼과 뒤채꾼으로 구성된다. 각 편의 동채를 따르는 주민들은 자기편의 동채를 보호하는 한편 열렬하게 응원하면서 신명을 돋운다. 이들을 놀이꾼이라고도 한다.

동부군 대장

서부군 대장

앞에서부터 머리꾼, 동채꾼, 놀이꾼으로 편성된다.

⑤ 우군맞이

정월 14일에서 15일 오전까지 각 편에서는 수십 명씩 떼를 지어 시내를 누빈다. "동부야! (서부야!) 워! 이이 히히!" 하고 환성을 지르며 행진하다가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밀면서 머리꾼 훈련을 하다가 또다시 행진하기를 반복한다.

우군맞이를 위해 동채꾼들이 오고 있다.

우군맞이를 위해 놀이꾼들이 모여있다.

⑥ 싸움

싸움이 시작되면 양편은 밀고 밀리는 접전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한다. 동채 위에 올라탄 대장은 수신호를 이용하여 지휘한다. 상대방의 동채로 돌격하여 동채를 잡아채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점령해 해체하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이긴 편은 뜯어낸 동채의 부품을 나누어 메고 "월사! 덜사!"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승리를 자축한다.

기세를 올리는 동부군

양진영이 결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된다.

동부군이 동채를 위로 올리며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내가 동채에 올라가 탔는 게 많아요

내가 인간문화재 지정되기 전에 72년도부터 76년도 사이에 사무[계속] 대장을 했어요. 초창기부터 해마다 했는데 얼매나 되는지 횟수는 모르지만, 김명한 선생님은 연세가 많고 또 체격이 커가지고 동채에 못 타시고 차전놀이에서는 제일 먼저 내가 탄 거죠. 그러니께네 동채의 대장 노릇은 내가 1호지. 그때는 경험자도 없고, 내가 후계자로 기능보유자 할라 그러니까 대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타도 동부, 서부 중에 한 사람이 또 대장을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리는) 후배들이 바까가지고 타고 그랬어요. (처음 대장을 맡았던) 행사는 안동에 우리 민속축제할 때에 내가 탔어요. 그때만 해도 외부에 가는 건 극히 적었고 민속축제만 했거든. 그리고 시청이 입주할 땐가? 시청사에 기념할 때에 시청 거리 있잖아요. 저쪽 목성교[경상북도 안동시 목성동]에서 했는데 사람이 한 500명 이상, 700명이 와놓으니 얼마나 꽉 찼겠어. 거기서 내가 대장 노릇 했죠. 또 안동시에서 경북체육대회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도 내가 탔죠. 내가 동채에 올라가 탔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대장을 한 몇 년 하고 나니 밑에 사람들도 대장을 하고 싶거든. 이 사람들이 내가 나가는 걸 말은 안 하지만은 큰 데 자꾸 나가니까, '좋은 데[행사] 우리 못 해보네.' 싶으거든. 그때만 해도 대장 되는 게 굉장히 하고 싶은 역할이거든요. 당시는 대장이 제일 비중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춘

있는 자리고, 또 대장을 해야만이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대장 하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거든. 그니께 내가 오래 타면은 이수생, 전수생이 탈 기회가 없잖아요. 15명이나 막 밀려 있는데. 또 내가 타면은 밑에 사람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알려질 만침 알려졌기 때문에 대장 노릇을 하다가 밑에 사람한테 물려줬죠. 물려주니까 그 사람들도 2~3년 타다 또 밑에, 밑에 (물려주면서) 이래 사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우리 전수생은 한 80%는 다 타본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들입니다.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이 시키주면 좋아 못 살죠.

도민체육대회를 4번인가 안동에서 했거든. 안동서 할 땍에 (동채에) 내가 올라갔어. 내가 마지막 성화를 할라 그랬드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좀 그래서, 나는 여 동채를 타고 거는 체육 선생을 마지막 주자로 했습니다. '기능보유자 내가 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올라가 탔어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체육대회인데 전수생, 이수생이 타면 모양이 안 되니께네 내가 탔는 거죠. 내 인간문화재 되고 도민체전에서 한 두서너 번 (대장 역할) 했을걸요. (경북도민체육대회) 할 때마다 타는 게 아이고, 중요한 분야의 행사 때는 내가 탄다 그래서 제일 크고 관심이 많을 때 내가 탔죠.

안동차전놀이 할 때 (지역에서) 전부 다 와가 덕석몰이[명석을 말았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흉내 낸 놀이] 하잖아요. 또 기념으로 시징[놀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징을 치는 일]하러 나가잖아요. 보통 시징하는 게 내[나]고, 국회의원, 시장, 시

1994년 제24회 안동민속축제 및 제41회 시민체육대회

1998년 정기발표회

의장, 고다음에 의용소방대장 하든지 사단장 하든지 그래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민속인데 시장하고 시의장이 당연히 와야 돼. 그만침 무대 큰 게 어데 있습니까. 한 500명, 700명 하는데 가가 시징하는 것도 그 얼매나 영광인데.

옆으로! 돌아라! 좌로!

대장도 그냥 타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옆으로 가면 "옆으로! 돌아라! 좌로!" 이카이 손바닥 가지고 호령을 다 합니다. 또 (다른) 한 편은 우리 이수생이 타죠. 근데 고함치는 거, "돌아라!" 카고 호령하는 역할은 선임자인 내가 다 하고 그랬죠. 우리가 민속축제 하면 대장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대단하다.' 싶은데 아무나 못 탑니다. 왜 그러냐면 그기 쉬운 것 같지만은 잡는 데가 없거든. 아무 붙들 거 없는데 한 2~3m 공중에 떠 있으면 누가 배겨내나요. 줄을 잡아땡겨가지고 중심을 내한테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못해요. 줄 놓으면 그냥 떨어지니까. 넘어지면서도 팍 잡아땡겨야 돼요.

우리 지금 사무국장도 한 번 태웠다가 그냥 떨어져뻐렸잖아. 사무국장이 보다시피 몸이 좀 육중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타라 이래가지고 민속축제 하는데 저 밑에 광장에서 탔는데, 대번 떤질라 그르이까 (바닥에) 처박혀뿟어.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못 탔지. 저

양반은 지금까지도 훈련을 못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운동신경이 좀 예민해가 무사히 됐죠. 그기 잘 안돼요. 그래 운동신경이 첫째 있어야 되고, 또 이 동채라는 건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줄을) 잡아땡기가지고 안 떨어지고, 고함치면서 한쪽 손으로 호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용했죠. 사무 운동을 하던 사람이 돼가지고 그거 타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기계체조, 축구, 테니스, 탁구, 뭐 마이 했죠. 운동선수는 못 됐지만은 즐기긴 많이 즐겼어요. 선천적으로 아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 좀 먹어서 올해 쪼꼼 몸이 이상하지, 괜찮거든.

그리고 또 시장이 한번 탔다가 온 얼굴이 하얘지면서 떨어져가 사람 죽일라고 그랬다고 마구 난리 났거든. 정동호[鄭東鎬, 1941~, 안동시장 역임] 시장. 민속축제할 때니까 가을이죠, 아마. 94년쯤, 95년이나. 민속축제할 땍에 "시장이 타고, 인간문화재인 내가 타고, 둘이 타자." 그르이 시장이 "좋다. 태와 다오." 해가지고 서부 편에 타고 왔는데, 시작할라고 (동채를) 드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떨어져서 그냥 (바닥에) 처박혔어요. 밑에는 아스팔트, 세멘[시멘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위험한 거, 나는 멋도 모르고 탔디만은 사람 죽일라꼬 그런 거 아이냐." 내한테 공식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반항을 했죠. 그게 함부로 못 타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대장을 맡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민속축제니까 내가 시장을 함 태아 줄라고 그래 해가 자기도 좋다 그랬거든. 근데 나도 생각을 못 했고 자기도 못 했어. 덜

렁 들어놔뿌니까 식겁을 하죠. 그래가지고 못 타고 다른 사람이 탔잖아요. 놋다리[놋다리밟기, 경상북도 무형유산] 공주 타는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 태아줄 때 보통 어머니 회장, 간부 딸, 이래가 영광스러운 사람을 자리로 올려줬는데, 이 차전놀이는 남성 중에 그래도 대틀[몸집이 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좀 직위가 높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못 타잖아요.

차전놀이가 어렵다 카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은 아무나 안 태웁니다. 동채에 타는 대장은 우리 이수, 전수생, 훈련된 사람만 태우고, 확실한 사람만 태워주죠. 우리가 볼 때 인정을 받아야 태아주지, 민속축제 같은 데서 하나 다쳐보세요. 요새는 뭐 전부 보상해줘야 되고, 타고 싶어도 못 태아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마, 차전놀이 대장 하고 싶으면 타면 되는 줄 알지만은 타본 사람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니 동채꾼들은 다 힘센 사람들 세우잖아. 대장이 히뜩 넘어지면 밑에서 받아야 돼. 그니께 뇌진탕 안 걸리죠. 그 사람들이 다 활약을 해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떨어질 때도 몸을 못 잡아낼 만치 희한하게 떨어진다고요. 그니 기양 처박아삐. 머리가 사람 몸 중에 제일 무겁잖아요. 머리를 땅에 먼저 댄다고. 그니께네 우리가 교육시킬 때 동채꾼들한테 대장을 한번 보라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받

으라고. 안 그러면 차전놀이 한 번 하면 차전놀이 비용 다 들여도 그 사람 치료 못 해드립니다. (한번은) 뒤놀이꾼이 하나 히뜩 나자빠져뿟어.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치료 다 해줬잖아요. 아직까지 큰 사고는 안 났는데 병원 가면 입원비에다가 누구 말대로 퇴원하면 개라도 한 마리 잡아줘야 되지. 그니께네 우리가 태아드리고 싶어도 함부로 못 태우고, 사람이 없어도 오십, 육십 된 사람 잘 못 씁니다. 잘못하니 놀이꾼으로 옇잖아요. 놀이꾼 하다 자기가 넘어져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요.

안 해보면 일반인들은 차전놀이가 어렵다 카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이 타면은 기양 올려만 주지, 덜렁 들거나 이런 장난 안 치잖아요. 대번 떨어져뻐리니까. 또 삐딱하게 떨어져뿌고. 그니께 어렵게 하지 말라고 딱 교육을 시키가지고 하지.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이런 사람 태우면은 동채를 못 흔들구로 하거든. 기양 이래 올렸다가 내려주고 그래. 자기네는 뭣도 모르고 올라가 손 흔들지. 그런데 기양 올리면 떨어져뿐단 말이야. 그리고 목청이 옳지 않으면 대장 못 해요. 목청이 크게 "앞으로! 돌아라!" 큰 소리를 치고 목이 든든해야 장군 겉지,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로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께 사람 선정하는 게 수운 것 겉지만은 고게 알맞게 해줘야 돼. 어떤 사람 올라가면 목청이 굉장히 가냘픈 기 있거든. 그이 대장 자격이 있나? 없거든. 그니께 막 "돌아라!" 카고 목소리를 크게 해야 대장 겉지, 가느다랗게 해봐요. 그거 되나.

기양 이래
쫓아댕기면 안 돼요

학교나 군인이나 또 단체에 가면은 차전놀이는 어떤 것이고, 역사는 언제부터고, 대장을 하든지 앞놀이꾼, 뒤놀이(꾼) 요래 한다 설명 다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습하러 나가죠. 대장, 동채, 농악, 깃발 다 역할이 있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라 그러면 한없지, 뭐. 앞놀이꾼들은 저짝 상대방 앞놀이꾼하고 눈치를 맞차가지고 올리는 거고, 대장은 "들어라!" 카고 "밀어라!" 카고 좌로 우로 이래 돌아가는 거고, 또 동채 메는 사람은 "빼라!" 이러면 뺄 줄 알아야 되고, 고다음에 깃발 드는 사람은 자기 동채 따라다니면서 깃발을 똑바로 들고 흔들어서 자꾸 움직이고 해야 돼. 기양 이래 쫓아댕기면 안 돼요. 농악은 기양 "탕 탕 탕 타다당" 이래 치는데, 그거 안 하고 팔다리를 흔들며 쳐야 되는 거야. 간단한 거 같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농악이 장단 맞추는 기 문제가 (아니고) 신나게 해주는 거거든. 그게 곡이 없다고. 온몸을 이래 움직이면서 막 다리를 들고 "탕탕"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께 가에서 보는 사람들이 힘이 나지. 그런데 안 해 본 사람들은 자꾸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행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하고 틀려요. 말하자면 동채 메는 사람들도 뺐다 꼽았다 카는 기술이 있어야 돼. 카메라가 전부 다 놀이꾼들을 찍잖아. 내가 쫓아 댕기고 가함[고함]지르는 게 그거거든. 움직여라 이거야. 그래야 활동적이거든. 또 깃발 흔들고 따라 댕겨라, "우리 편 이겨라!" 카는 식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머리꾼, 동채꾼은) 고 분야에 서가지고 잘못하면은 "빨리 해라, 돌아라, 동채를 던져라." 이런 걸 전부 다 코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차전놀이 하는갑다.' 이래 생각하는데, 처음 하는 이는요, 700명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할라 그러면 내가 볼 땐 몬 합니다. 진짜 못해. 뒤놀이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젊은 아들 옇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머리꾼이 한 발 돌릴 때 밑엔 열 바쿠, 열 발을 돌려야 해요. 막 돌아가니께 뒤에 사람들은 젊은 사람 아니면 못 해요. 막 넘어지면 밟고 넘어가뿌고. 한번은 사람이 모자라가 여자를 옇었다가 식겁을 했잖아요. 여자가 못하니께 막 밀어제끼뿌고 이라더라고. 또 한번은 의용소방대 사람 안 나올라 그러는 걸 옇었더니만은 뒤에서 뒤놀이꾼으로 행사를 하는데 사단 동원한 장병이 등을 때리면서 빨리빨리 뛰라고 때렸어요. 그러니 히뜩 나자빠져가 "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 부모가 와서 막 해악을 했어요. 우리가 때린 것도 아니고 군인이 때리건데 하도 답답하이 말 못 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비만 내주라." 이래가지고 응급치료 한 거, 고 비용만 줬어요. 요새 다치면요, 해악합니다. 그니께 그렇게 안 할라고 활동할 능력 있는 사람 골를라 그르니께 나만 보면 수분[쉬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동원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때 장소에 따라 다 틀리는 거예요. 길에서 하는 거는 노는 게 안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하면 놀 수 있고, 흥이 있거든. 길에서 하는 거는 가함지르고 막 씩씩하게 하는 거 뻔히 보이지만 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운동장 큰 데서 하면 가에 사

람 빌빌빌 돌릴 수가 있어. 이런 회형[동체를 중심으로 둥글게 도는 형태]을 해야 돼. 근께 이기 수십 가지래. 길놀이 같은 거 하면은 농악 치고 "와와~" 그러고 깃발 들고 하지만, 운동장 같으면 가에 도는 놀이꾼들이 다 해요. 카메라 잡으면 막 쫓아가고 신나고 옷이 날리고 깃발이 날리고 해야 되거든. 역동적으로 해야 단체놀이가 살지요. 역동적으로 안 하면 단체놀이 죽는 거예요.

동채에는
쇠가 하나도 안 드갑니다

(동채는) 한 3년, 5년 계속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당년 해가지고 뿔가져뿔[부서져버릴] 수도 있고 예측을 못 해. 이게 삐딱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안 돌면은 뚝 떨어져버려. 그르니까 새 거 다른 거 바까가 또 들고 막 쫓아와야 되지. 원래 참나무 야문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참낭기[참나무] 곧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첫째 무거워. 그래가지고 니기다[리기다 소나무] 나무 있잖아요, 전붓대처럼 쪽쪽 올라가는 거. 니기다 나무 아니면 소나무로 해요. 곧은 기 그거빽에 없잖아요. 그 나무 깎아가 하는데, 하다 뚝 뿔거지면 새로 해야 되지, 어떡해. 소나무가 요새 쭉 곧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전수생 안에 건축업자를 하나 옇어놨어요. 이장영이라고 동채 맹글고, 여 우리 하는 시설을 그 사람 아니면 못 해. 외국 가

나무 따듬을 때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맨들어. 그런 걸 할라 그러면은 이 분야에 한 사람 있어야 되지. 맹탕이 나무 따듬고 동채 못 맹글잖아요. 그르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조직을 해놨는 거야. 다 고려해가 하죠. 지가 건설업 하니께네 기구가 다 있잖아. 통째로 들고 오면 기술이 다 있으니께네 못 빼고 박고 톱으로 끊어내고 하죠. 우리 중에 톱 갖고 짜구[자귀] 들고 댕기는 게 누가 있나요?

요즘은 할 수 없어가지고 동채에 못을 박는데, 이전에 마을에서 할 때는 동채에는 쇠가 하나도 안 드갑니다. 철사줄이 드가면 다치거든. 옛날에는 동채를 맹글 때 처음부터 삼 해가지고 새끼 해서 매가 했지, 못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요즘은 못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계가 좋으니께네 철사 줄 굵은 거 대면 낭구[나무] 뚫고 줄 넣기 때문에 살이 안 떨어지지. 기양 놔뒀다 만약에 삐끄덕해가 찢으면 뭐 사정이 있나. 굵은 철사 줄인데 거 걸리면 살 그냥 떨어져뿌잖아요. 우리 책자에 있습니다만은 김명한 씨하고 고증인 서이 할 때부터 그래가 했어요. 그때 그 어른들이 새끼 꽈가지고 동채 맹글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그래 할 짚이나 삼도 없지만은 힘이 시가지고 그냥 막 뜯어제껴 뻐려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질하기는 하는데, 못질하면 사람 안 다치구로 할라 그르니 우리가 애를 먹는 거죠.

이 동채가 뭐냐면, (싸움에서) 이겼다고 춤을 추니까 옛날에 새우장사[둥짐장수] 있잖아요. 같이 막 춤을 추잖아. 그러면 지게 우에 장정이 올라가가지고 가함을 친 기, 이 동채 대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 동채 모양을 지게같이 맹글었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동부야, 서부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김명한]이 구상을 해가지고 대장 발판, 짚하고 머리 카락하고 닥[삼]하고 해서 맹근 거예요. (동채 앞머리를)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상해요. 서로 뚜드려 패고 이런께네. 이 X자[동채 앞머리를 X자로 교차해 만든 것] 하는 건 더 이상 (앞으로) 못 드가구로 하기 위해서 X자를 맹글어 놨는 거야.

옛날에는 동채 하나 맹글라 그러면 여기서 길안[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동[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봉화[경상북도 봉화군]까지 갑니다. 임하[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길안의 한패, 풍천[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풍산[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의 한패, 이래 동서부에서 오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회의하면은 수당 다 줘서 거 가 이틀, 삼 일 해가 나무 비가 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오전이면 다 맹글잖아요. 그니께 그만침 차이가 나지. 나무 비가 오면 동채를 맹글어야 되잖아요. 그면 옛날에는 동민들이 돈을 얼매 내가지고 "우리 차전놀이꾼 도와주자." 이래서 술, 적[炙] 해가지고 길 지나가면 한 잔씩 다 믹이고 이랬어요. 그때는 참 진심으로 했지만 요새는 그런 기 없어.

(의상)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오는 돈 일부하고 시비[市費]로 하잖아요. 그런데 의상 지금 비싼 건 못해요. 500명, 700명 하는데,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되는 거 해놔면 싸가지고 가뿌는데, 뭐. "옷 벗어라." 그러는데 벗나요? 싸가지고 가서 시사[時祀] 지내는 데 입고 갈라

그러지. 그러니께 싼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번 하면 한 80벌, 50벌 잃어뿌는데. 그리고 세탁비가 비싸거든. 세탁비 한 벌에 2,500원인가 5,000원인가 주는데, 그 옷은 12,000원짜리거든. 그이 차전놀이 세 번 하면 지대로 째져가지고 버리야 돼. 그런데 그기 싸겠지. 잃어버리지를 않으니까. 좋은 거, 빠닥하고 괜찮은 거는 가[가져]가고 없어. 500명, 700명한테 "옷 가져오세요." 하면 가지고 오나. 기양 차 타고 가버리는데 어째 파악하노. 우리는 그래도 회원들이 양호하니까 한 90% 건지내지, 다른 데는 못 건져내. 지금 한 700벌 저 옷장에 다 개 옇어 놓잖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차전놀이겉이 그렇게 애끼는 데가 없어요. 사가지고 세 번, 네 번 세탁해 입는 데가 어데 있나요? 안 하거든.

이거 화합 안 하면 안 되죠

(안동차전놀이는) 협동, 단결, 화합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기 김명한 씨 초대부터 해 온 겁니다. 화합하고 협동하고 단결 안 하면 차전놀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는 지휘자가 잘하는 게 아이고, 여 와가 하는 동채꾼들이 서로 안 돕고 그런 관념이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 그래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아주 뭐라 그럴까, 구호로 하고 있어요. 협동, 단결, 화합하는 거는 우리가 100%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이거 화합 안 하면 안 되죠. 협동, 같이 안 움직여주면 안 되죠. 거기다 우리가 차전놀이 하이께네 단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떨 때는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살면서 궂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서로 위로하자." 내가 사무 주장을 해. 그러니께 될 수 있으면 차전놀이 하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고, 죽었다든가 하면 문상하고 그래 하라꼬 해. 형제겉이 지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 전수생 이수생은 서로 불행한 일이 있다든가 행복한 일 있으면 축하, 문안, 이런 건 잊어뿌면 안 된데이." 내가 사무 그래요. 집안은 혈통이 통하니까네 안 해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그걸 겉으로 표현 안 하면 아무 가치성이 없다고 내가 그래요. 진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밑천이 굉장히 크다.' 나는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변해,
변해 온 것이 지금의 동채예요

차전놀이가 삼태사[고려 개국공신인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에서 유래해 나온 거잖아요. (후)백제 견훤[甄萱, 867~936, 후백제의 초대 왕]가 문경[경상북도 문경시] 사람인데 백제 가가지고 후백제 왕이 됐잖아요. 그니께네 신라 땅을 먹고 싶어서 신라를 쳐들어가니까 신라가 고려 왕건[王建, 877~943, 고려 제1대 왕]한테 "우리 도와다고." 손을 벌렸는 거야. 그래서 왕건이 내려와가지고 백제 견훤하고 싸움을 했는 거야. 그런데 백제 견훤이가 안동으로

쳐들어왔는 거라. 안동으로 쳐들어오니께네 왕건이 안동서 제일 부자 세 사람, 김선평, 권행, 장길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지. 그래가 이 세 사람이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백제 견훤을 물리쳤는 거야. 그래서 고려 왕건이 벽상공신[4]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라에 훌륭한 공적이 있으니까네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 세 사람을 붙여놨어. 그리고 이 세 분을 개국 공신으로 시사하고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성[姓]을 준 거야. 그래서 각 성의 시조가 됐어. 안동 선조가 바로 삼태사야.

삼태사가 전쟁을 해가 이겼잖아요. 이기니 안동 시민들 좋다꼬 춤을 출 거 아입니까. 그래 하니 청년들이 지게를 태우고 같이 춤췄지. 옛날엔 지게꾼들이 받쳐서 했거든. 그래 지휘를 할라 그러니 높은 데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게 위에 올라갔는 거야. 올라가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가함지르며 하는 광경이 동채가 돼 버렸어.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연을 할 때 지게 위에 올라가 고함을 치면서 힘겨루기 하는 형용이 차전으로 변해서 안동 민속이 된 거지. 처음엔 동채를 지게 형상으로 했는데 그대로 하면 사람끼리 부닥끼가 다치는 거야. 그래서 올리면서 밑에를 안 부닥꺼리게 동채가 변형됐어. 옛날에는 눈알도 때려가지고 빠져가 있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그게 변해, 변해 온 것이 지금의 동채예요. 그리고 한 여자가 술장사하는데, 나뭇잎을 따가지고 지독한 술[고삼술]을 백제 군인들한테 멕였

4 삼한벽상삼중대광아부공신(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직위다.

는데 혼수상태라. 그래서 승리를 했거든. 우리가 구호가 "월사! 덜사!" 이러는데, '월사! 덜사!' 카는 거는 '월사', 시체를 타 넘고, '덜사', 시체를 밟으면서 모래사장을 도망갔다 이 얘기야. 조선일보에서 "워이쌰! 워이쌰!"(라고 썼는데,) 일본 시대 "힘내라! 힘내라!"가 "워이쌰! 워이쌰!"인데 그래 썼다고. 그래 "올키 물어보고 해야 되지, 왜 그래 썼나?" 내 반박을 해가 사과를 받았어요. 우리 구호가 "월사! 덜사!"입니다. "월사! 덜사!"

태사묘[5]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태사, 세 분을 모시는 데래요. 김씨 회관, 권씨 회관, 장씨 회관을 맹글어 놔놓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동 제사를 지내는 거라. 그기 8월 며칠인가 그렇지, 아마[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 그래가 1년에 한 번씩 성씨들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6]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 했는데 내가 "삼태사의 선전을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나도 잔 한 번 붓자." 그랬거든. 그러니께 어른들이 "그런 법은 없다. 성도 틀리는데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했어. 승낙이 안 돼. 안동에 성씨들이 참 많지만은 이 세 분이 전쟁에서 백제를 물리쳤는 데서부터 살았거든[시작됐거든]. 안동 양반들은 그런 데 참여를 안 했지만은 고려 역사라꼬 이래 마이 있어도 씨족이 적으니까 득세를 못 했고, 삼태사 출신들이 장악을 다 해갔죠. 지금까지도. 왕건이가 돌아가서 고맙다고 안동이라는 지명을 맹글었어. 전쟁이 끝

5 태사묘(太師廟)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의 시조를 제향하고 있는 사당이다.

6 헌관은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제관을 대표해 잔을 올리는 사람으로,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나눠진다.

이 나고 편안한 동쪽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그리고 안동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양반이 사는 곳이 인심이 좋으니까 나라의 임금이 세 번이나 이 고장에 와가지고 기거했거든. 안동에 왕건 와가[와서] 있었지, 충렬왕[忠烈王, 1236~1308, 고려 제25대 왕] 와가 있었지, 또 하나 공민왕[恭愍王, 1330~1374, 고려 제31대 왕] 와가 있었지, 그러는 거는 안동빽에 없어요.

06

내 혼자 해서 되지를 않잖아요

·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 여게 와도 자기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집 지어줘라

· 누구 하나 더 했다, 덜 했다 할 수 없을 만치

· 상비군만 한 200명 갖고 있습니다

· 인원 동원이라는 게 그렇게 에렵습니다

· 어려움이 뭐 수도 없이 많죠

· 차전놀이 회장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안동차전놀이보존회는 1968년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이듬해 설립되었다.
이재춘은 이수생과 전수생을 지역의 신망 있는 인물들 중, 생계에 여유가 있고 전통에 애정이 깊은 사람들로 직접 구성했다.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을 매년 치러야 하는 만큼, 가장 큰 어려움은 인원 동원에 있었다. 이재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200명을 상비군으로 두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사단법인 안동차전놀이보존회는 6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68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사단법인체 구성이 됐거든요. 대통령상을 68년도 받으니께네 그다음 해에 천상[천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립 당시에는 안동차전놀이보급회라 했어요. 처음에는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급회인데 "이제 보급을 할 필요 없다. 이제 선전하지 않고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안동차전놀이보존회[1986년]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사진은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서장, 문화원장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너무 기관을 위주로 한다 이래가지고 일반 유지들을 전부 옇었습니다. 이사진을 두 번 이상 못 하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꿋고 바꿋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이도 마이 이사를 해요. 또 이수생, 전수생은 거의 100% 저가 다 골랐는데 "고 나이에서 누가 좋으냐?" 해가 추천을 받았어요. 거게서 알뜰히 할라 그러는 사람, 애정이 있는 사람 골래 놨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수, 이수생 우리만치 까쭉하게[잘 갖추었다는 의미] 갖고 있는 데가 없을 깁니다. 젊은 사람 중에 안동에서 활동하면서 똑똑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 전부 다 아는 사람 추천받아가 내가 다 옇었어요. 시간 내가 여 와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차전놀이 행사할 땍에 (참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해보면 알지만 그런 사람 못 구합니다. 그리고 밑에 전수생들은 (이수생들한테) "그 사람들 니네가 골래라." 이러거든. 젊은 사람

은 내 잘 모르잖아요. “함 추천해봐라.” 하면 누구누구누구 이래. 그럼 “그 해라.” 하지. 서이 골라가 오면 그중에 내가 하나 고르고 그렇게 해. 전수생까지 내가 손을 대면은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 할까 봐 이수생한테 전부 다 넘가 줬죠.

매년 정기총회는 1월, 2월 초에 합니다. 이사진하고 우리 상비군, 한 50명 전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1년 쓴 결산 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거기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시장, 시의장 다 와 앉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수자도) 다 참여하죠. 안동회관에서 주로 합니다. 거기서 하면은 장소도 되고, 음향 조절도 되고, 또 고 밑에 가 점심도 먹기가 수월코. 회비는 상비군 말고, 이사진하고 임원만 1년에 만 원씩 받습니다. 안 받을라 그러니까 남 보기 안 좋아서 형식적으로 했어요. 한 20년 내내 1년에 만 원씩입니다. 형식적이죠.

여게 와도
자기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

(이수생들은) 거의 90%가 대학원 출신이고 전부 다 사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러고 한두 사람인가 제외하고 전부 다 대학 출신이고 직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께네 우리가 회의를 밤에 하잖아요. 전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 해요.

우리 전수, 이수생들은 전부 다 생활이 내보다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자잘한 거 (불만) 없고, 또 내가 불만을 갖도록 하는 일이 없었고. 이분들은 문화재청에서 이수, 전수생한테 주는 수당 5만 원, 7만 원 외에는 돈을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체에서 "이수, 전수생 돈 쫌 더 주시오." 카고 진정한 일도 한 번도 없고, 해악한 일도 없고, 데모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돈의 아쉬움은 없어. 전부 다 자기들 먹고 살잖아요. 또 내가 자제를 시키거든요. 내가 여 고향이고 하니께네 100% 내가 골랐잖아요. 내가 돈 안 줘도 걱정 안 하고, 또 둘째는 여게 와도 자기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다 골라놨어요. 상황이 그렇죠. 여기는 재력이 좇기거나 시간에 좇기는 사람은 못 해요.

집 지어줘라

이[안동차전놀이보존회] 터가 낙동강 (백사장)이었습니다. 이걸 저까지 막고 낙동강 모래 파다가 부토[敷土]한 거예요. (지금) 강이 660m 폭인데, 440m가 강이고 220m에 이 부지를 맹글어 놨잖아.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놀이터를 보고 "야, 이거 참 보배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광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는 민속이 강릉단오제거든요. 강변을 우리같이 복개 공사를 했는데 비만 오믄 진흙탕이 되어 가마니 깔아놓고 댕깁니다. 우리 같이 시설 이렇게 깨끗하고 알치게 하는 건 대한민국 어데 봐도 없

어요. 이건 원래 시의회에서 공공기관, 시청 아이면 안 준다 캤는데 바로 전임 시장 김휘동[金暉東, 1944~, 전 안동시장] 시장이 "차전놀이 (전수교육관) 여게 땅에 합시더. 차전놀이만은 여서 하게 해 준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지었어요.)

처음 지아가지고 3번 증축을 한 거예요. 처음엔 쪼꼬만해서 한 4~50명 드가면 가뜩 찼는데, 이기 증축된 이유가 나선화[羅善華, 1949~, 전 국가유산청장] 문화재청장이 도산서원에 왔어요. 내가 만내가지고 "여 왔는 김에 안동차전놀이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했더니) "가는 김에 그래 하입시더." 그래가지고 여 왔어. 와가지고 차제에 설명을 다 했더니 청장이 놀래부렀는 기야. 호텔 사장에다가 골프 사장에다가 건설업에다가 예총 지부장에다가 전부 다 안동 최고 큰 사업 하는 사람들이 전수생, 이수생이라 돈에 대해서 간섭 안 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런 단체가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과장한테 전화해 "당신이 출장 와가지고 다시 내한테 보고를 해라." 이래가지고 과장이 왔어요. 와가 물어보는 거 고대로 설명해 주니께 문화재청장이 대번에 "집 지어줘라. 이런 단체는 밑에서 보고받은 일도 없고 나도 몰랬다. 청장으로서 미안하다. 그 대신 내 기념으로 이 집[안동차전놀이보존회]을 지이 주꾸마." 그래가 이 집 지어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집이 괜찮앴어요. 청장이 특별지시해가 일부러 2층을 올리게 맨들어 줘서 2층 회관, 회의실이 나온 거야.

누구 하나 더 했다, 덜 했다 할 수 없을 만치

우리 보유단체는 전부 다 각각 (역할을) 부여를 다 해놨습니다. "대장은 니가 하고, 앞놀이의 모든 통제는 니가 해라, 뒷놀이는 니가 해라, 농악은 니가 해라, 동채는 니가 해라." 해놓고 있어요. 그래가 전문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행사하면은 각 분야 책임자를 꼽아 옇습니다. 옇고 따라댕기면서 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능란하게 잘해요. 동원부장이 보통 안동에서 제일 활동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한체육회 부회장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체육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해 나가지, 아무나 못 해요. 홍보부장은 경상북도 예총 지부장입니다. 그러고 전국 예총 본부 부회장이고. 그만한 사람을 맽겨 놓는 거예요. 그라면 홍보는 자기 나름대로 하거든요. 직업하고 관계 다 있죠. 훈련부장 김우섭이는 경북도민일보 국장입니다. 거는 내가 초창기부터 발굴했는데 도청 출입하고 했어요. 신문사가 아주 큰 신문사가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활동 능력이 있습니다. 훈련부장은 동원돼가 온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지아났는 거죠.

전승 교육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한 달에 두 번 하게 돼있어요.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죠. 옛날 어른들은 설을 지내면 보름까지 놀잖아. 일꾼도 놀고. 그래 모여가지고 저래[준비를] 하는데, 우리야 한 달에 두 번 교육시키니까 각 분야별로 다 책임 있게 하지. 안동차전놀이 전수, 이수생은 교육할 때 각 분야마다 위치를 바꿉니다. 전수 교육할

때 동채도 맹글고, 실제 교육도 하고, 대장도 한 번 해보고, 놀이꾼도 한 번 해보고, 농악도 한 번 해보고, 깃발 드는 거 전부 다 한 번씩 시키잖아. 마구 한 번씩 다 해보도록 빌빌빌 돌리는 거야. 이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회원이 되잖아요. 또 지도를 하고. 영상도 보여주죠. 우리가 행사 때마다 촬영한 거 다 주거든요. 교육하고 실습하면 요새 전수, 이수생들은 머리 안에 다 입력이 돼있어요. 앞놀이꾼들은 어째 하면 된다, 뒤놀이꾼은 어째 하면 된다, 대장은 어째 하면 된다 설명만 하면 돼.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농갈래[나누어]주잖아요. 교육할 때 내가 회장이니까 주로 얘기하고, 또 사무국장은 사무업무,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이래 내려왔다." 이런 거 전달해주고, 고다음에 대장 하던 사람한테 "애로사항이 뭐가 있노?" 그카면 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여[전수교육관] 오면 좀 크고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여서 음식 맹그는 것도 아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께네 1시간 좌우 되게 하고 헤어지죠. 이게 단체놀이기 때문에 이수생은 기여를 100% 다 했습니다. 누구 하나 더 했다, 덜 했다 할 수 없을 만치 각 분야에 다 한 겁니다. 내 혼자 해서 되지를 않잖아요.

상비군만 한 200명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젊은이를 동원을 해야 됩

니다. 50대 넘었는 (사람도) 숫자가 없어서[모자라면] 낑길 수도 있지만은 거의 다 2~30대에 해야 합니다. 놀이꾼들이 돌아갈 때는 앞에 동채에 있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요래 하지만, 뒤에서는 열 발을 뛰야 돼요. 그니까 고마 농악하고 막 죽을라 그러죠. 내가 들어가서 고함치고 뛰라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에 고참들은 지금 못하잖아. 나이 한 50 되면 조금 그렇고. 그이 젊은 사람 올려가지고 자꾸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째 젊은이가 전부 다 동원이 된다, 둘째는 저희들이 돈을 안 주면서 젊은이 동원하기 힘들거든요. 인원 동원이 안 되면 낭패가 되는 거야. 그니께 전부 다 우리 이수, 전수생들의 친구가 다 십여 명씩 들와가 있어요. 내가 책임제를 맹글어 놨거든. 지금 한 15명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니 10명 동원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규 회원으로 맹글고, 차전놀이 할 때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동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시 보조 10원도 받는 기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는 전수, 이수 수당이지, (다른 건) 없어요. 돈 안 보고 온 사람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고 하는 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내가 사철 "참 고맙다." 그래. 그리고 "불평하는 이는 오지 마라." 내 그러고.

그런데 한 500명, 700명 한다고 하면 우리 전수, 이수생들이 동원해도 모지래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동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 500명, 700명 동원하는 게

힘듭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하면은 이웃 동네, 연사간[連査間, 사돈 친척으로 연줄이 되는 사이] 동원해가 했지만 요즘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단체가 있으니까, 군인이나 의용소방대나 야간에 경비 서는 방범대원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동원하면 돼요. 내가 의용소방대 고문으로 있거든요. 거기 의용소방대를 한 200명 그대로 동원하죠. 지금 현재 상비군만 한 200명 갖고 있습니다. 차전놀이에 애착이 있는 사람을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사하면 요 사람들은 나오도록 맹글어 놨는 것이 상비군이라. 그 대단한 거죠. 각주에[갑자기] 어데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상비군 없으면 못 하잖아요. 언제 가르쳐가지고 동원해가 합니까. 2005년쯤에 상비군을 맹글었어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놓으면 동채 미는[메는] 걸 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편으로 해서 우리가 사무 끌고 댕기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아마 민속놀이 중에 200여 명 상비군을 가[가지고] 있다 카는 거는 우리 차전놀이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 단체에서 이렇게 군중을 보유하고 있는 거 없어요. 내가 볼 때 외국도 없을 것 같애. 그니께네 내가 참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김명한 씨) 그분은 내 선배지만은 능력자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인원 동원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학생들이에요. 우리가 (안동고등)학교를 전수학교로 지정을 했어요. 문교부[현 교육부]나 교육위원회에서 전수학교로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어요. 학생 아이면 사람을 100명도 못 끌어모으잖아요. 도민체전[경북도민체육대회]

1994년 제24회 안동민속축제 및 제41회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한 학생들

안동차전놀이에 참여한 학생들

같으면 1,200명인데 돈도 감당을 못할 뿐 아니라 동원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학교서 학생들 동원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차전(놀이) 해도 우리가 옷 하나도 못 사줬어요. 그런데 그 때는 학부형들이 조선 옷 입고 제사 지내고 이랬거든. (학생들이)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을 입고 왔다니까. 그래서 부모님 바지 저고리 입고 오고 짚신만 우리가 샀어요. 자기네들 옷 입고 자기네들 가가 (세탁하니까) 세탁비도 안 드가지만은, 요새는 단체복을 사가지고 하면 세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때 학생들이 참 봉사를 많이 했지. 근데 행사를 하는데 밥 한 그릇 안 줬어요.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 고다음에 (지원금이) 쪼끔 늘어가지고 우유 한 통씩 줬어요. 그다음에 빵하고 우유 하나씩 줬고, 그 후에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5만 원, 3만 원 줬어요.

인원 동원이라는 게 그렇게 에렵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떠들어가지고[반대해서] 못 하게 돼가지고 학생들 동원이 안 됐어요. 학교 학생들은 말을 안 들어가 선생님들이 안 할라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를 통해가지고 군인들 동원한 거예요. 군인은 내가 들어와가지고 동원했죠. 군인도 처음엔 사단에서 협조를 잘 해줬는데 해 보이 안 되니까 안 할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문들이 전부 다 별 하나 이상 땄거든. 그래가지고 저 우에 있는, 말하자면 군단사령관이나 2군사령관 전화만 하면 오다[명령] 떨어지면 여서 100%니까, 나중에 그렇게 군인을 동원했어. 그 대신에 욕을 안 얻어 물라꼬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국밥도 아주 든든하게 주고, 떡 주지, 고기 주죠, 잘 맹글어가 술 주죠. 어쨌든 먹여야 되는 기라. 소고기국 잘 해가지고 밥 한 그릇 주고 나면은 하이[아주] 좋거든.

군인들을 동원하면은 사병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사병들이 철조망 안에서 밥만 타 먹다가 여 나오면 잘 먹잖아요. 또 많이 먹는 사람은 세 번을 타 먹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기야. 그니께 안동에 있는 36사단에서는 장병들이 1년 소원수리를 쓸 때 '내년에도 차전놀이 하구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99% 이상 소원수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2005년 제4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공연에 참여한 군인들

사단장이 국방부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거라. 사병들한테 그만치 호응받구 지도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단장이 참모총장상을 받았어. 그리고 국군신문 카는 거 있죠? 거기 1면에다가 안동차전놀이 했다 그래 내놓았죠. 그래가 참 인기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대 명분으로 이래 떼가[떼어서] 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은 사병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모다가[모아다가] 자기들 체육대회를 해. 체육대회를 하니께네 사병들이 차전놀이 하는 걸 그리 원하고 있어요. 사병은 거의 100%가 여 와가 놀고 싶어가지고 오는 걸 좋아해.

우리가 69년도부터 동원을 했거든요. 그이 내가 교육시키고 같이 활동한 지가 몇 년입니까? 한 40년 동안 한 회 좌우 700명이니께네 얼마나 했습니까? 특히 안동대학하고 어울릴 때는 1,200명까지 했잖아. 그래서 전에 총장님이 유네스코에 올리기 위해가 한 3,000명 동원하자 해가지고 내하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안동대학교하고 자매(결연) 형식을 맺었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학교 총장이 해도 학생들이 동원이 안 돼요. "그게 에렵네요." 그래가지고 좌절이 됐어요. 한번 실패를 했는 기, 안동대학에서 200명인가 동원을 했는데, 학생들이 한 50명, 30명밖에 안 왔어요. 그니 당일날 우리가 굉장히 마이 실수를 했죠. 적은 인원 가지고 구체 없이 하긴 했는데, 그 인원 동원이라는 게 그렇게 에렵습니다.

어려움이
뭐 수도 없이 많죠

보유자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하니께 내대로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잘하는 게 뭐냐? 사람 마이 끌어모두는[모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와 도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단체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받고 지금은 한 1억이 넘게 받는데, 이게 전부 다 시하고 도에서 출전하는 차전놀이 회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야. 내가 지금 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단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사람 제일 마이 동원되고 보조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우리 차전놀이일거에요. 예전에는 동채 멘 이는 5만 원, 기양 하면 3만 원 이래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면 또로로 말아가지고 우리 보는데 내떤져. "그 돈 받고 뭐 하러 가노? 논에 가도 15만 원, 우리가 막노동을 해도 하루 20만 원 받는데." 이 뭐냐고 내떤져. 이래가지고 올려서 지금 7만 원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사하면은 모두 막 꺼렸는데 요새는 나올라 그러는 사람 50%는 돼요.

내가 "시에서 보조를 좀 해다고." 이래가 7만 원까지 올렸는데, 더 조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데에서 "왜 우리 안 주노? 차전놀이 반만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 시장이 죽을 지경인 거라. 나는 쪼끔 더 활약을 해가지고 돈을 더 보조받고 싶은

데 “안동차전놀이 그렇게 마이 (지원해 주면서) 우리 1/3도 안 주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 지방에서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 내가 마이 받으면 시에서 고전을 하는 기라요. 그래서 이제 최저 임금을 주고 최저 인원 동원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한 가지만 있는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졸라가지고 잘 협조를 받는데, 단체가 4개 아닙니까? 저전논매기[안동저전농요, 경상북도 무형유산]까지. 그르니께네 저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뭐 수도 없이 많죠. 많은데, 단체 이끌어 나가는 단체장은 돈 없으몬 못 끌고 나갑니다. 그니께네 내 안동대학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동대학은 민속학과가 있잖아요. 안동 문화는 거서 모체로 생각하고 나가야 되지, 학문적으로만 얘기하믄 나는 안 맞다 이기야. 민속학에 대해서 좀 연관을 좀 지어주면 좋겠어요. 시간 많은데 특강도 한번 시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 자매(결연)까지 맺었잖아요. 그런데 안동대학교 학생들 동원해가 차전놀이 할 때 사람이 “30명 갑니다, 50명 갑니다.” 해놓고 둘이도 안 오고 서이도 안 오고 이래뿌거든. 대학교수는 “학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카는 기라. 그러니 안동대학하고 거래가 안 되는 기야.

차전놀이 회장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공연은) 6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죠. 한 번도 빠짐없이. 1년에 한 번 공연하는 거는 시에서 지원해주니께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공연하는 거지. 최하 한 번, 사람이 7~800명 동원되니까 그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안동)민속축제하고 도민체전 같은 거는 도에서 돈 대주고 했어요. 안동서는 너무 자주 하니까 모두 차전놀이에 대해서는 "봤는데,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귀찮게 "지난해보다 더 못한다, 더 잘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최하 우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딱 한 번 발표를 하고 있죠.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다른 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서 활동하는 건데, (초청하는) 단체에서 수당을 줘야 우리가 갑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이 할 때는 네 번 이래 하긴 합니다만 그건 전부 다른 단체에서 버스비, 하루 일당, 점심 값 딱 부여해줘야 가요.

우리가 (초청 행사) 그걸 자꾸 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 우리가 동원되면 출연료를 받아야 될 건데 농악 두 팀 돈 줘야 되죠, 일반인들 7만 원씩 줘야 되죠, 고다음 점심 줘야 되죠, 간식 줘야 되죠, 버스 해야 되니까 감당할 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우리가 대가지고 가 해주죠. 외부에 (초청받아) 가는 거는 흥정해가 우리 단체에 얼마 돈이 (필요하다,) 이거 안 주면 못 간다 그래가지고 가요. 비용을 누가 대주지를 않잖아요. 만약에 강릉단오제 간다

이래 하면은 버스를 300명 할라 그러면 (한 대에) 80명, 100명 해도 2대, 3대, 4대 해야 돼. 버스 차비, 농악 수당 줘야 되죠, 차에 타는 사람들 하루 수당 많이는 못 줘도 5만 원, 7만 원 줘야 되죠. 그니께 "돈을 얼매 주세요. 우리 최하 경비 이렇게 나오니까 도리가 없다." 그카면 거기서 보조해주면 가요.

그런데 그기 흥정하는 데서부터 살이 찡그려지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남가 먹을라고 그러는 것같이 되고. 500명, 700명이 갔는데 우리 단체에서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돈 한 100만 원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있어요? 난리 나지. 얼매나 어구씬[억센] 사람인데. 그이 지금까지 유지한 거는 부정이 없어서 그래요. 부정이 없으면 자기 소신껏 할 수 있어요. 장[책(責)] 잡힐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면은 우리가 쪼끔 남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인원 동원이 잘 안 된다든가, 또 우리 간식대 같은 거 인원대로 하지만은 하다 보면 쪼끔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전수 교육할 때 이수생한테 "얼마 남았는데 우리가 나누자." 아니면 남겨 가지고 사무실 비용을 쓰거나 해요. 적으면 자기들이 노나 쓰자 소리 안 해요. 내가 솔직히 우리만치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주는 데가 있거든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니께 우리가 지금까지 한 50년 하면서 말썽 없었는 게 돈 10원도 속일 데가 없잖아요. 버스비 절약 못 하죠, 점심값 못 하죠, 출연료 손 못 대죠, 농악 손 못 대죠, 어데 갖다 손댑니까? 막걸리를 주는데 거 빼먹으이 얼마나 빼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차전놀이에 대해서 다른 이가 입을 못 뗍니다. 부정이 있어야 잡아내는데 그게

안 되잖아. 내가 거기에서 돈 받아먹나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 선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들 돈 몇만 원 안 주는 것 가지고 항의하겠어요?

지금 내가 내 자랑이라든가 과시를 안 하고 그냥 이래 있어 그렇지 어마어마한 큰 단체입니다.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차전놀이 회장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상 이 차전놀이 회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999년 국제로타리 3630 지구대회 초청시연

07

안동에
이런 좋은 놀이가 있다

· 참 내가 봐도 장관이었어요

· 그러면 박수갈채가 나오고 막 이러지

· 이건 국보 중의 국보다

· 그런 인물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 그러니 영광이죠

· 모국 생각을 마이 하더라고

· 그 사람들이 동채 미고 했어요

· 민속 겉은 데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안동차전놀이는 국내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하와이 등 해외에서 많은 공연을 펼치며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이재춘은 각국 현지에서 동채를 직접 제작하고, 교민과 현지인을 동원해 공연을 성사시켰다. 그중 세계 정상들을 비롯해 3천 명의 대규모 인원 앞에서 공연했던 독일 하노버 엑스포 공연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참 내가 봐도 장관이었어요

우리가 대통령상 받고 나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니까 각 시군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래 할 땐에 초청해가 시연을 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시연이지만, 의미와 사기를 상기시키는 데는 더할 게 없는 민속놀이지요. 내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기 뭐냐 하면, (2015년에) 문경서 세계군인체육대회[7] 할 땐인데 그건 대단했어. 진짜 카메라로 전문적으로 잡아놨으면은 참 좋았을 거야.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한국서 열었잖아.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다 집결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운동 중에서 제일 크게 한 걸 거예요. 그게 대통령 박근혜[朴槿惠, 1952~, 제18대 대통령]가 참석할 정도로 컸는데, 참 성황을 일으켰어. 세계군인체육대회니께네 세계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개막식) 맨 끝에 우리 차전놀이가 공연을 했는데, 해가 막 질 때라. 일부 라이트를 켜기도 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니께네 대한민국 제일 큰 체육대회잖아. 그 옆에는 별이 둘, 셋, 넷 되는 장군들이 쭉 앉았고, 국회의원들이 몇이 낑겨 있고, 장관은 국방부 장관 하나지. 우리 차전놀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라서가[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그 별, 막 번쩍번쩍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7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군인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국제 군인스포츠위원회가 주관하며 4년마다 열린다. 2015년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개최되었다.

국회의원이고, 다 일라서는 거야. 나도 그 옆에 있었는데 섰지. 본부석에 서니께네 스탠드 우에 올라갔던 각국의 군인들이 다 앉아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있으니께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개미 떼 같았어. 참 대단했어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세계군인체육대회니께 체육하는 세계 젊은 사람들이 와가 노는데, 우리 여 안동전국체육대회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막 씩씩한 사람들 내려오는데 진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차전놀이) 다 하고 나서 풀이하잖아. 우리가 한 200명 데려가가 했는데, 빌빌 돌면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데 막 신이 나니까 각국의 선수들, 참여한 군인들이 다 내려왔어. 스탠드 위에 2만 명이 앉았는데 운동장 다 내려오니 어마어마하게 크지. 와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났어. 그렇게 잘해. 그건 진짜 감격적이죠. 참 내가 봐도 장관이었어요. 이게 전쟁놀이니까 의미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신났습니다. 구경꾼은 하나도 없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대통령이 벌떡 일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할 정도니께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한 행사 중에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면 박수갈채가 나오고 막 이러지

그리고 삼군[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에서 옛날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참 무지무지 컸는데. 공군은 에어쇼를 했고, 해군은 용트림을 해가지고 운동장 돌고, 육군은 차전놀이를 했거든. 젊은 군인들이 돼놔노니 차전놀이 해가지고 뒤로 막 나자빠지구로 맹글어. 그러면 박수갈채가 나오고 막 이러지. 사관학교 (차전놀이) 할 때 우리가 사무 한 게 아이고 (식전 행사로) 한 번만 했는데, 체육대회를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했죠. 군인 장교 중에 육사 나오고 차전놀이 안 해본 이가 없어. 다 해봤어요. 국군의 날, 이런 날 하고. 그 후에는 (체육대회가 없어져서) 차전놀이 안 하니께 잘 몰라요. 차전놀이에 대해서 국군신문에 1면 톱으로 한 장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육군참모총장이 날 불러가 감사패 줬잖아. 상패를 하나 맹글어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크단한 거 하나 내한테 주더라고. 그런데 김영삼[金泳三, 1929~2015, 제14대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인들의 단체 활동을 못 하구로 해버렸어요. 하나회[전두환, 노태우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육군 내 비밀 사조직] 싹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삼군 체육대회도 하지 마라." 그래가 중지를 시켜뿌니께네 못 하잖아요. 민정에 들어서면서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중단될 때부터 차전놀이가 없어졌죠.

(2013년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도에 200명이 갔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분위기를 잡을라꼬 계획적으로

거기 갔죠. '독도를 가슴에, 한국인의 기상', 이 문구도 내가 지은 거예요. 도지사가 특별 관선을 옇어가지고 동채 가지고 배 타고 독도 갔어요. 우리가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 가함지르면서

2013년 독도 시연

지신을 눌러줬잖아요. 말하자면 기를 눌렀죠. 갔는 회원들 모두 참 사기가 대단했죠. 안 그래도 미운 일본 이미지를 꺾고, 또 한 번도 안 가본 독도 땅에 갔으니. 그런데 이기 잘못한 기, 바다에 나무를 뗏목겉이 엮어놔 가지고 그 우에서 한 건데, 부선[浮船]이 면적이 얼마 안 돼요. 다른 데 할 데도 없고, 독도 배경을 옇어가지고 이 쫍은 데서 하니께네 활동을 글쿠 못 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미술 단체도 가고 소년들도 가고 이랬는데, 가가지고 가함지르고 뚜드린 데는 우리빽에 없어. 독도에서 내가 (동채에) 탔어요. 이짝은 우리 이수생이 탔고. 이거는 참 기념될 만하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전국의 인간문화재를 초청했어요. 초청을 받아 가지고 영빈관이라 카는 데 가 식사하고. 아, 대단하죠. 그때 문화재청의 과장이 나를 영부인 있는 데 옆에다 앉혔잖아요. 일부러 그 옆에다 앉혀 주더라고. 전부 다 참 내로라 그라는 분들인데 문화재청의 과장이 직접 와가지고 자리를 앉으라 그러니까 김정숙[金正淑, 1954~,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배우자] (여사가) 웃는데, 영부인 옆에 남자 섰는 법이 없어요. 기분은 너무 도취되이께네 막 감상을 느끼고 이런 게 없었죠. 말이 수워 그렇지, 좋든 나쁘든 간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옆에 앉아가 밥 먹는 거, 하하, 안동에서 다른 이가 가도, 시장이 가도 그래 못 합니다. 인간문화재들이 이래 있는데 그래도 골래가 나를 앉혀주니께 내가 고맙다 그랬지.

2013년 독도 시연

청와대 초청 오찬

이건 국보 중의 국보다

2000년 새해에 독일서 산업엑스포가 열렸는데[하노버 엑스포 2000], 각 국가에서 2000년 지금 사는 데서부터 3000년 되면 어떻게 발전하겠다 카는 산업엑스포를 각 나라대로 다 맹글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천 년 후 물의 존재를 상상하는 예측 프로를 구상했는데 독일서 이 행사를 상징할 수 있는 민속으로 안동차전놀이를 선택해 초청했어요.

"(차전놀이가)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민속놀이다." 그러니 독일에서 "세계에 그런 놀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최 회장이 차전놀이

를 구경하기로 하고 안동까지 왔어요. 본 리버만[보리스 본 리버만, 하노버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사국장]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문화 행사의 권위자래요. 그래가지고 안동대학교로 해가지고 "이래 하는 거다." (보여주려고) 연습을 시켰어요. 자기가 언덕 우에서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되겠다." 한 거지. 그리고 내가 안동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음식이 밥부터 반찬까지 전부 다 조선 뚜껑이 있는 걸 담아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자기가 "이적지 세계에 댕기면서 이래 대접받기는 처음이다." 그래요. 마구 놋그릇에 해놔노니. 그래가지고 "초청하겠다." 이래가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심을 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뭐냐 하면 세계 민속놀이 중에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민속화된 건 이거밖에 없다 카이 거짓말이래. "세계에서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민속이 어데 있느냐? 진짜 그러면 이거는 교재로 세계에 나갈 문제다. 저 나라 자랑할라고 당신들이 일부러 지았는[지어 낸] 거 아니냐?" 그래. 아이라 그러니까 고개 쩌울딱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 민속놀이 중에 전쟁하고 관계된 게 몽고 징기스칸, 말 타고 가는 기 한 가지인데[나담, 몽골의 전통축제로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한국이 쪼끄만하니 (그런 나라에서) 그렇다면 이건 국보國寶 중의 국보다. 세계 국보다." 자기가 평가를 그래 했어요.

그런 인물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 그러니 영광이죠

그때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을 3,000만 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독일을 가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상비군들하고 도의 직원, 기자, 공직자와 비행기 타고 300명이 가니께네 뒷자리 한 20개 정도 남고 싹 다 찼어. 우리 보존회 전수, 이수생 15명하고 우리 상비군들 수고한께 다 데려갔죠. 그래 300명 채워서 갔어요. 도, 시에서 돈을 대줬으니까 기자들 한 너덧 데리고 그래 갔죠. 하노버에 우리가 300명 갔는데 숙소를 가건물로 새로 지어 줬다고. 한 방에 요래 2층 계단으로 해가지고 여섯인가 자그로[자도록] 맹글어가지고 7박 8일 동안 있었어요. 12번 공연했는데 인공위성[위성 중계] 2번 했죠. 그러니까 독일서 돈을 굉장히 마이 옇었죠. 독일에 와 있는 세계 대통령, 수상, 대사, 이런 사람이 3,000명이 모였는 전야제에서 우리가 공연했습니다. 세계의 그런 인물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 그러니 영광이죠.

차전은 거 가서 만들었어요. 동채를 배로 (이송)하면 한 달이 넘게 걸린대. 그면 고 시간에 못 대거든. 그래서 우리 전수생들 두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갔어. 지금 우리 이수생이야. 김우섭이, 또 하나는 김우일이. 동채는 내가 만지질 못하잖아요. 힘도 그렇고 해서 데리고 갔지. 그런데 독일에서 목공을 둘을 주더라고. 파견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래 해 다고. 이래 해 다고." 해가지고 완성시켰어요. 리버만에 말해가 "독일 대목을 쫌 선정을 해다고." 이래가 동원

해가지고 동채를 맨들었어. 독일에 니기다 기단한 거 있잖아. 전봇대 하던 그 나무 비가지고 따듬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독일이 장비가 좋으니까 나무 끌코[끊고] 하는 거 잘하더라고요. "요래 따듬어 다고." 그리 말하니께 딱 해요. 근데 거는 새끼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끼를 두 타래 비행기 안에 옇어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이라니께 독일 남녀들이 축제장에 와가 가세를 해뻐려. 우리 300명 안에 독일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 춤을 췄거든. 그니 난리가 나는 거죠. 칭칭이[꽹과리] 몰고 징을 뚜드리고 같이 놀아. 신나면 지 목걸이 줘뿌고 시계 막 갖다 내주거든. 우리 차전놀이 사람들 줄 기 없잖아. 그러니까 짚신을 벗어뿌고 막 갓도 벗어 줘뿌고 바까뿌니까 우리 장비가 다 떨어져버렸어. 그

2000년 독일 하노버엑스포 2000 초청 공연

2000년 독일 하노버엑스포 2000 초청 공연

래가 내가 짜증을 내이 뭐 찾을 길이 있나. 그래가지고 내중에 장비가 없는 공연을 하다시피 했어요. 꽹과리하고 풀이할 때 되면은 한국 놀이가 신이 나가지고 막 관중들이 같이 어울리고 이래요. 독일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독일 국영방송에서 인공위성[위성 중계]을 한 번 더 해줬어요. 외국에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줄 일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독일 가가 7박 8일 동안 그만침 국위선양한 거, 진짜 이거 자랑을 해도 좋아요. 그기 대단한 거예요. (기억에) 남고 말고. 아마 어느 나라에도 그만침 동원된 데가 없고 그런 대접받은 데가 없어요. 참 어떨 때는 외국에 이래 나가면 우리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훌륭한 놀이가 많았는데 그런 걸 다 형용을 못 해요.

그때 참 내가 미스[실수]를 한 게 행사를 하고 밥을 먹는데, 메뉴 표를 갖다 놨는데 독일어를 내가 알아야지. 읽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이기 어떤 음식인지 몰라. 독일어가 읽어봐도 내 눈에 익숙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갓을 쓰고 조선옷 입고 하니까네 내한테 전부 집중이 돼. 당황을 해가지고 밥을 못 시키고, 어정쩡해가지고 변소 가는 것 같이 해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선물을 못 받았어. 그기 제일 안타까워. 세계 대통령들이 와서 선물이 좋을 건데. 밥도 잘못 시켜서 요리 한 상 나와뿌면 그거 뭔 꼴이 되간. 그리 못 해서 밥을 못 먹고 선물도 못 받은 게 지금까지 제일 후회돼요.

독일에 가니까 우리나라 유럽 특파원이 여섯이 있어. 동아일보, MBC, KBS 이래가 있는데, "저게[저기에] 한국 기자들 있다." 이래가

지고 내가 드갔지.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가니께네 이래 보고 반기지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 옆에 앉아가 맥주 사가지고 한 잔 부어주고 하니께네 조금 관심을 (주고) 그래. 이튿날 인공위성[위성 중계] 띄우고 하니께네 그때부터 기사가 나오더라고. 우리 차전놀이 기사를 한국 신문사에서도 받고 이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리버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잘한다." 이래가 팁을 1,200만 원을 줬어요. 내일[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식전에 1,200만 원을 줬어. 받아가지고 소대별로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한 사람당 12만 원씩 노나줬어. 다 주고 돈이 한 3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내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 넥타이 사가지고 간다." 그러고 기자들이고 관공서고 다 줘놨으이 좋아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올 때 (독일에) 타고 갔던 비행기를 또 탔어. 이기 2대가 왕복을 하는 거야. 그니께네 그때부터 (스튜어디스하고) 얼굴을 알게 돼가 친해졌지. 근데 아침에 돈을 노나주고 비행기를 탔으니께네 12만 원을 하나도 못 쓰고 비행기 안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니께 300명이 비행기 안의 물건을 다 사니까 입에 바르는 립스틱, 그것까지 다 떨어지고 비행기 안에 물건이 싹 다 떨어져뿟어.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비행기를 몇 년 탔는데 이런 꼴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동이 나도록 물건을 다 팔아줬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해에 우리가 와가 태사묘에 비석을 맹글었어요. 시에서 도에서 돈을 타가지고 갔잖아요. 여비하고 음식은 거서 다 대주고 별로 쓸데가 없으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시장한테서 승인 얻어서 태사묘 안에

하노버엑스포 2000 시연 기념비 건립 제막

차전각[車戰閣, 삼태사의 활약과 관련한 차전놀이용 동채를 보관하는 곳] 앞에다 기념탑을 맹글어 놨어요. 2000년 새해를 맞아 독일 하노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다(는 의미로) 비[碑]를 맹글어 세워 놨고, 삼태사 안에 차전각 있잖아요, 거 갔다 와가 제사를 한번 지내도록 했죠.

모국 생각을 마이 하더라고

캐나다 한국문화인협회에서 한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속을 초청했어요[2016년 제15회 한인문화의 날 초청 공연]. 그래서 캐나다의 국민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캐나다 시에서 하니까 여 말로 하면 시장이 나왔더라고. 격

려를 하고 대접은 우리가 참 잘 받았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람 (많이) 못 데리고 갔으니까, 12명 갔어요. 그래서 거기 한인문화 회원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차전놀이를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이고 캐나다에 한인협회 회장이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다 참여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동원을 다 했죠. (동채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독일 가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현지에 가 만들었어요.

밴쿠버[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도시]의 공설운동장(에서 했어요.) 인원이 얼마 안 돼서 한 패가 한 2~30명, 총 5~60명 했는데, 현지 우리 한민족만 (참여했어요.) 한 이틀 나와가지고 요래 요래 한다 카는 걸 가르쳐서 했죠. 뭐 공연 자체가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이고 같이 어울린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 부녀자도 참여하고 같이했는데, 공연 자체는 시시해도 참여도가 높았으니까. 공연하는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한 2~3,000명 됐을걸요. 마이 왔어요. 한민족, 캐나다 주재하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스탠드 우에 노인들이 앉아 있는데 공연을 하니까 유심히 봐요. '한국의 민속이 여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카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느꼈어요. 모국 생각을 마이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내가 옆에 앉아 이래 보는데, 물끄러미 보면서 자리를 안 뜨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전부 다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 가치 있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동채 미고 했어요

뉴질랜드 공연할 때[2018년 한인의 날 초청 공연]는 '이런 걸 준비해주시오. 요런 요런 규격으로 해 놔라.' 하고 우리 공문을 보냈는데, 뉴질랜드 사람들이 동채를 이해를 못 하고 전봇대 겉은 걸 네 나[개]를 갖다 놔 놨더라고. 전봇대 그걸 어째 깎나요? "이거 아이고 산에 가가지고 요만한 낭구[나무]를 비야 된다." 이라니께 뉴질랜드에서는 산에 가 나무 빌라면 허가를 받는 데 이틀, 삼 일 걸려야 된대. 어려워. 그래가지고 건축 자재 파는 데 가서 기둥 겉은 거 하려고 보니까 마침한 게 없어.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철공소에 가서 파이프, 그놈을 샀는데 새끼가 없어. 짚이 없어. 그래서 붕대를 가지고 이래 감아서 한 기라. 거기에다가 헝겊을 매가지고 그래가 했어요.

그때 우리 전수, 이수생 15명만 갔죠. 한인 분들은 구경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4~500명이 되는데,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어. 가가지고 동원을 할라니께네 한민족 출신 사람이 없어. 군에 갔다 온 노장들만 있고. 동원이 안 되서 행사를 못 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가 급하기는 급하고 어쩌나. 내가 하소연 하니께네 뉴질랜드 공설운동장에 경비 서는 사람을 (동원해 줬어요). 뉴질랜드 사람을 동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채 미고 했어요. 경비를 안 서고. (웃음) 우리 전수생들이 댕기면서 "앞에 요래 하소. 요래 하소." 해가 공연을 했어요.

하와이에서도 차전놀이를 했는데 하와이 가 왜 했냐면, 미국에 한국인이 정착한 지가 10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민속을 하나 불러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한테 협조해 주는 게 없고. 우리는 갈라 그러는데 돈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줘서) 못 가고 있었는데, 날짜는 (다가오니까) 한민족 회장이 겉몸은 달고[애가 탄다는 의미] 그래가지고 하와이 가서 해군 장병들을 동원을 해서 공연했어요.

민속 같은 데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안동차전놀이가) 책자[잡지]에 나온 거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또 신문에 나온 거, 이런 거 많애요. 여러 군데 나왔지. 신문 잡지에는 안동차전놀이 원형 그대로 공연한 거 설명하고, 몇 명 동원이 되고 어떻게 했고 인기가 어떻다, 또 지금까지 이런 데 이런 데 가가지고 (공연)했다, 요 정도 쓰는 거지. 매년 반복이 되니께네 매스컴에도 안 달겨드는 기지. 요 밑에 전시관에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실린 거, MBC 나온 거, 또 세계 잡지 나온 거 숱하게 많지만, 하매[벌써] 역사가 깊어 놔놓으니 수십 가지가 돼도 특이한 게 없어요. 맨 홍보고 다 한 거지, 뭐.

기억(에 남는 방송은) 대담 방송한 거죠. MBC, KBS 다 했죠. 대구

TBC도 하고 거의 다 나갔어요. 근데 안동도 방송국 두 나[두 개] 있지만, 처음에는 쪼꼼 해주고 요새는 안 하거든. 날마다 차전놀이 비[보여]주는 거, 그거 시청자 좋아 안 그러거든. 하등 그런갑다 싶은 거지. 이기 좀 새로워야 매스컴이 확 달겨드는데, 날마다 하면 "하는 기지, 뭐." 이거죠. 이기 70년대부터 하니께네 근 50년 넘게 했잖아요. 반복된께 새롭지를 안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 안 생기는 민속 같은 데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할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신적인 문화, 이런 게 자꾸 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뉴스 보면 산업화에, 맨날 정치에, 구속하는 거, 이것만 나오잖아. 하여튼간 우리나라에 변화가 오는 거는 과학자가 하지만은 이 민속학자가 해야 돼. 그이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인간이 암만 재주 있고 발달이 돼도 자연을 못 이긴다고.

08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 같지

· 내가 다 넘가 줬어요

· 도하고 시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 문화라 그러는 게 안 뜬다

이재춘은 2023년에 안동차전놀이보존회장직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현재는 기능보유자로서 역할만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단체 운영에서 부정 없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온 점을 자부하며, 국가유산청과 경북도청, 안동시청의 실질적인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전통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가 다 넘가 줬어요

내가 차전놀이보존회장 하다가 지금 문화원장 하는 권석환이한테 올해[2023년] 회장을 넘가줬거든요. 너무 오래 해서 회장도 후계자한테 물려줬고, 또 문화원장도 물려줬고, 지금은 기능보유자의 직함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8년 했지만은 세 번까지 할 수 있거든. 근데 내 다 넘가줬어요. 지금 우리 이수생 중에 호텔 사장이 적습니까? 사무국장이 적습니까? 예총 지부장이 적습니까? 마구 놀랠 정도로 감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수, 이수생들이 전부 다 사장이고 고관들인데 한 번씩 해라 했죠. 내가 너무 오래 하면 (보존회가) 안 크니까 물려준 거예요. 초창기, 89년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했으니까 너무 마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김명한 씨가 별세하고 나서였거든. 그리고 91년도에 보유자가 됐지.

(보존회장일 때하고)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결재가 안 오니까 도외시되는 기분이 들죠. 그렇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있어놔 놓으면 "저놈의 영감이 사무 해가[하니까] 진척이 없다." 이라면 안 돼. 그러고 또 왜 올해 줬냐 하면 등기를 올해 새로 해야 되거든. 차전회보존회장 등기가 있는데 그걸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 (올해) 하면 4년을 또 해야 돼. 한 번 더 등기해뿌면 이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지. 지금도 좋긴 좋은데 안 물러나가이 정체돼 뿌니까. 누구든지 뭐든 직책거리 내놓기 수운 게 아니에요. 내 후임자한테 넘가가지고 "너도 한두 번만 하고 자꾸 넘가 줘라." 그랬어요.

(보존회장직은) 고 순번 있잖아요. “조교부터 쫙 해가지고 한 번씩 해라.” 그래가지고 또 고다음에 임국장하고, 고다음은 대한체육회 부회장 하고, 고다음 예총 지부장 하고, 고다음 신문사 국장 하고, 요래 순번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내가 놓아줘 뻐려야 풀려나가지. 회원들은 아무 소리 없죠. 전부 다 내가 다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거고, 거기 대한 의아심도 없고 고마 순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넘가주고 시원섭섭한 마음인데, 내가 뽑아놨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 같지. 내 지금 결재를 하지도 안 하지만 저거끼리 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나는 기능보유자니께네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관여는 하거든. 내 역할은 보존회로 오는 돈 가지고 농갈라[나눠]주고 행사에 쓰는 것까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어.

도하고 시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69년도부터 총무를 보고 51살에 인간문화재가 돼가지고 지금 얼맙니까. 83(살)이니까 한 30년 했는데, 한 해에 보통 마이 할 때 (참가 인원이) 1,200명, 적게 하면 300명 했거든. 사람을 얼매나 다뤘습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우예 이래 (했냐고 묻는데,) 시 자문위원장하고 이래 하니께 다 통할 만해가지고 했죠. (내가) 잘한 거는 첫째, 하자가 없다. 하자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하자가 없고, 또 훈

련하는 것도 내가 이수생, 조교 가르쳐주고, 조교, 이수생이 또 전수생 가르쳐라 이래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반발이나 이런 게 없어요. 미리 대장도 밑으로 다 넘가줬거든. 그이 올해 회장도 다 넘가줘 버렸잖아요. 그니께네 내 스스로에 하자가 없으니까 내가 아쉬움도 없고 또 욕심도 없고 남한테 지탄받을 일도 없고 글쇼. 내가 69년도부터 차전놀이를 맡아가 하면서 한 번도 진정이라든지 오해로 싸움한 일이 없어요. 안동대학 교수들은 싫은 소리 자꾸 하지.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연구해가 고증인이 있다꼬 그러는데 사람 대라 카면 못 대잖아요. 누구 있다 그래서 찾아가면 나이 오십, 육십 이래 된 게 고증이 되나요? 안 되지. 그이 민속학과가 내가 어룸하다[어름어름하다] 그러는 게 그기거든. 어데 책자에 있다든가, 자기가 이래 발설을 해가지고 여기 참여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자꾸 앞세아가 촌에서 어디 차전놀이 얘기 들었다고 "니 고증인이다." 꺼내가 오니께 그기 안 되거든.

아쉬움은 첫째, 우리 마음에 드는 젊은 사람 인원 동원하는 기 제일 애렵고, 아쉽고. 둘째는 예산이거든요. 몇백만 원 들여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내도 되고, 이수, 전수생도 내도 되지만은 700명 동원할라 그러면 이게 억 단위를 들여가야 하거든. 그니께네 도청이나 시청이나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인원 동원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관이든 어디든 할 수 없어요. 친소[親疏] (관계를 따져서 가까운 관계는) 되어야 되거든. 친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단체는 돈 안 주고 꺼내기 힘들어요. 친구끼리 하

는 거는 돈 안 줘도 와서 밥 먹고 같이 놀지만은 단체나 몇백 명, 몇십 명 동원하는 데는 돈 없으면 못 따내. 그래서 관의 보조를 받을라니 힘이 들죠.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 도지사들이 차전놀이한테 잘해줬어요. 보조 마이 해주고.

도움 준 거는 문화재청도 모체니까 도움받지만은, 도하고 시에서 100% 보조받아 합니다. 시청하고 도(청)에가 졸라가지고 출연하는데 7만 원씩 줍니다. 적은 돈 아니래요. 그래서 도하고 시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우리 10원도 없어요. 다른 데 겉으면 만 원짜리 밥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7~8,000원짜리 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단체복으로 한복을 하는데, 한 벌에 제일 싼 게 15,000원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탁비하고 돈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고 또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밑에서 보는데 돈 100만 원 남가봐야 돈 20,000원 풀리는데 됩니까? 안 돼. 그니께네 단체놀이는 깨끗 안 하면요. 어데가 터져도 터집니다. 그니까 내가 10원도 안 먹은 이상 문제될 기 없잖아요. 내가 안 먹으니까 밑에 사람 먹어내나요[먹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안동에서 보존단체로 우리만치 돈 많이 가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마이 가가는데 난 찡찡거리지는 안 하잖아요. 돈 적게 준다, 안 준다 하지 않고 고맙다 그러죠. 특히 도가 더 고마운 게 안동시 주는 만침 도에서 주는 거지. 도가 굉장히 고맙죠. 도에 지사님도 잘 알고, 도 문화원연합회장도 하고, 내 자주 드가고 하지만은 자진해

서 줘요. 도에 가 돈 얼마 달라 소리 안 해도 국장이 어떤 때 "아이고, 돈 우리가 드릴게요." 대번 이러죠. 그러고 안동 출신 도의원들이 "차전놀이만은 봐줘야 됩니다." 아주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고 참 고마워요. 근데 안동시에서는 하도 졸래는[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보통 도만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명분이 있으면 공무원들 다 줄라 그래요. 근데 명분 서구로[서게] 할라 그러면, 내 얘기는 모체에 있는 대학교 민속학과 같은 기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문화재청에도 고마운 게, 세 번 연거푸 돈을 탔어요. 문화재청에서 3년을 최우수단체로 선정돼가 3,000만 원 받았어요. 다른 데는 상금 따면 전부 다 먹고 치워버리잖아. 그런데 처음에 한 거는 수고했다꼬 우리 전수, 이수생한테 내가 금반지 하나씩 해줬거든. 돈 주기보다 그게 기념으로 좋다 이래 해가. 그리고 (남은 돈을) 노나 줄라 그니께네 한 20명 되는데 돈 얼마 됩니까. 그래 먹자, 이래 가지고 우리 비상용으로 쓰는데 그것도 통제를 해요.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으소." 이카거든. 쓰지 못하구로 해. 그래가지고 조금 모다난[모은] 돈 1,000만 원 있어요. 상금 받았는 거 안 쓰고 예금해놔 놓고 있지요. 문화재청에서도 요새 또 안 하는 이유가 돈 줘보니께네 타는 데만 타가거든. 그니 잘하는 데 안 주고 못하는 데 안 탔다고 주기도 그렇고. 그니께네 요즘 좀 내가 볼 때 이기 중지 상태라.

문화라 그러는 게 안 뜬다

내가 나랏돈 마이 먹었잖아. 그래 내가 불평은 없어요. 없는데, 단 문화라 그러는 게 안 뜬다. 애석하다. 내뿐 아이고 전체가 안 뜬다. 뜬 게 뭐냐면 창가, 노래하는 여자들 단가[單位] 올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돈 10원 주는 거 없어요. 내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돈을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1,000만 원을 내놓을라꼬 마음속으로 딱 했거든. 그래 기부할라꼬 했는데 줘봐야 신문에 한 줄 날까. 해봐야 안 돼. 그래가 내 와가지고 내가 구두 상품권을 40매를 샀어. 그래 안동에서 내 마음에 드는 이 다 줘버렸어. 나하고 가까운 사람 주는 게 낫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단체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한테 고마운 사람들한테 40장을 돌렸어. 내가 한 800만 원 쓰고 200만 원 점심 먹고 이래 용돈 쓰고 그랬어요.

지금 차전놀이 회원들, 젊은 청년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월급 받고 수당 받아 가려고 오는 건 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이래 하잖아. 근데 그 보조금을 지원해 준 가치가 없도록 문란을 시키뿌면 안 된다 이기라. 그니께네 내 얘기는 이건 하나의 문화지만은 봉사 단체를 대우를 (해주고,) 비중을 둬야 돼. 이거를 수당 주고 이래 해야 된다 카는 게 아이고. 우리 (회원들이) 사장이고 영향력이 있으니께 돈 몇만 원 받는

데는 신경을 안 쓰이 활동을 하죠. 누가 요새 더울 때 돈 안 주는데 나갑니까? 그기 불가능합니다. 내부터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걸 고마워하고 이해해주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께 내가 참 안타깝죠.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건 정신적인 게 100%입니다. 내가 와 있으면은 좋겠다 카는 사람만 선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단체의 어떤 책임자, 부여하는 권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유지를 하죠. 다른 데 겉으면 못합니다. 우리는 생업이 따로 있고 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단체를 알아주지를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죠.

09

나도 보면
참 운이 좋았는 편이에요

· 그대로 다 잘 컸는 거죠

· 사무 분주한 사람이래, 내가

· 참 좋은 데 골랐다

· 책이라도 하나 남가 놓자

· 차전놀이 하면 내 문 앞에 서기 온다

이재춘은 안동차전놀이보존회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여전히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회봉사, 유림 행사 등 지역 문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조상의 묘역을 정성껏 관리하며,
자서전 집필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그는 돌아보면 참 운이 좋았던 인생이었다고 말한다.

그대로 다 잘 컸는 거죠

희한하게 애들이 참 정직하고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쪼끔 되겠다 싶은 걸, 손자까지 참 잘해. (첫째 아들은) 이상준[李尙俊, 1967~]인데 가는 연세대 화공과를 나왔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신문사 편집국장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이병준[李秉俊, 1969~]. 거는 공군사관학교 나와 가지고 유도 4단에 태권도 4단짜린데, F16 조종사 최고 기록 내고 사천에 비행장[사천공항] 맹글어가 시운전한 아라. 내가 장군을 하나 맹글라꼬 그랬는데, 세명대학교 (이사장인) 친구 권영우 씨가 "니 아들 내가 데리고 와야 돼." 그래 데려가가지고 대학교에 기획실장 맡겨 놨잖아. 내가 고걸 하나 올케 마음먹고 기를라고 했는데 뺏기뿠어요. 야는 진짜 아까운 마음이야, 내 아들이라도. 셋째는 이호경[李昊景, 1970~], 안동대학교 국문과 나왔는데 4년 장학생 해 가지고 성희여고의 선생 하다가 의사한테 시집갔어요. 아들[자식들이] 이 그대로 다 잘 컸는 거죠.

사무 분주한 사람이래, 내가

(보존회에) 매일 나옵니다. 평일날 매일 오전에 와요. 첫째 왜 나오느냐. 신문 보고 앉았을 땍에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평생 공무원하고 직장 가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오전에 집에 못 있어요. 그래 오전에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로 와가지고 신문 보면 다 가요. 사람

가족사진

들이 날 안 나오면 좋다 칼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와가지고 현황 확 보고, 신문 한 번 보고, 차 한 잔 먹고, 오후에는 내 볼일 봅니다. 요새 평화동[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정에 가가지고 놀고 화투도 치고 그래 세월 보내죠. 이제 친구도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죽고. 그러고 집에 드가가지고 집안일 보죠. 그르니께 내가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빠요. 촌에 농장이 조금 있는데 거기도 가볼 여가가 없어요. 오후에는 집에 가가 청소하고 밤에는 마누라 데리고 있어야 되고.

차전놀이도 그렇고, 사회 봉사활동, 회원 가입한 데가 많으니께네 거 가고, 친구들하고 모이가 밥 먹고 모임하고 그래요. 또 맏이 되니 촌에 관리하고 이라니께네 하는 일은 없어도 사무 분주한 사람이래, 내가. 모임은 문화원 관계돼가[되는] 모임도 있지만은 안동 사니까 유림 측 행사가 많애요. 거기에 마이 감당을 하죠. 유림 활동을 하는 게 아이고 유림이 문화원하고 (일을 많이) 하이께네 행사 있으면 큰 데는 안 빠졌지. 초대를 해서 가지, 내가 뭐 가고 싶어 가고 직분 있어 가는 건 아이고. 나한테 한복도 춘추복 다 있어요, 도포까지.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으로 오면서 입주할 땐에 우리가 차전놀이도 했지만, (경상북도)지사가 초헌관이잖아. 그 축문을 내가 했어요. 그 때는 도청 온다 하니까 매스컴에서 나와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카메라만 해도 10대가 넘었을 기라. 거창하게 (했는데) 안동 유림이 쌔빌릿고[많이] 있는데, 내가 관여했으면 싶어가 그거 주더라고. 축이 최고잖아요. 그래 고맙더라고. 그래가 김관용[金寬容, 1942~, 정치인] 지사하고 잔 올릴 때 내 거 갔는데, 참 나로 봐서 신기하죠.

참 좋은 데 골랐다

우리 조상님들이 살림이 괜찮으니께네 뫼를 다 좋은 데 썼어요. 청량산[경상북도 봉화군] 도립공원에다 멋지게 써놨는데, 어떨 때 돈을 주고 (풀을) 비고 이래 함 올라가서 앉아있으면요, 그림도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참 좋은 데 골랐다.” 내 이래요. 다른 이는 제사 지내러

경북도청 개청식에서 축문을 읽는 이재춘

가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몰차[몰아]가지고 합동 묘역 맹글고 이라잖아. 내 그거 안 하잖아요. 하도 뫼 위치가 좋아서요. 가보면 참 놀랠 기라. 올해도 내가 돈을 1,300만 원 들여가 네 위[묘]를 가토[加土]를 했어. 이 블럭 촥 크게 두르고 왕릉겉이 크단하이[크게] 해놓고 앉아 있으면 산이 막 불룩불룩불룩, 앞에 모란꽃겉이 이래 참 좋아요.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은 그거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 나는 그 산소를 하나도 옮길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머니 산소만 내 이장했는데,

그건 내가 꿈을 꿔가지고 원체 좋은 데니까 했지. 일절 산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고대로 (두고) 가토만 봉[봉분] 맹글지.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근데 아들[자식들]은 뭐 해도 "아버지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고) 저는[자기들은] 관심이 없어. 내 죽으면 야들은 뫼에 한번 가도 안 할 거야, 아마. 갈 시간도 없고. 내가 뫼 봉이나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산소 갈 여가도 없고 가지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애서 내가 한 10년이고 100년이고 유지할 만침 봉을 다 맹글어 놓고 그라지. 내가 자랑이 아니고 기여를 마이 합니다. 선조들 산소까지 다 손을 대니까. 참 말하기가 그렇지만 요즘 사람 내 만침 해주는 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해요. 뫼 봉을 할라 그러면 전부 다 불도저 데려가가지고 기계로 해야 되지, 인건비로도 안 되거든. 그거는 내가 자랑하죠. 참 요새 사람 중에 조상 유골 있는 데 잘 따듬는 거는 5프로 안에 들어갈 거라.

책이라도 하나 남가 놓자

요즘 차전놀이 회장 그만두고 이제 더 할 일이 없잖아. 차전놀이도 내놨고, 문화원도 내놔, 이제 내일모레 죽을 판인데 '내가 이거 하나라도 남가야 되겠다.' 카는 것이 내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내 일생에 대한 걸 쓰는데 지금 원본은 거의 따듬어 놨어요. 한 달 반 전에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죠. 구체 없이 원본을 가지고 책을 맹글어야 되

겠다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컸는 과정 쓰고, 관공서에서 활동한 것보다도 내 생애 살아온 것만 다 옇었지. 자서전은 내가 출세를 못 해 봤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고. '책이라도 하나 남가 놓자.' 싶은 것이 내 소망이에요. 지금 원고는 다 됐으니까 연말 되면 안 되겠어요?

안동고등학교 국어 선생 나오신 이동백 씨라고 시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볼 때 사람이 순진하고 문장력이 있어요. 내가 "좀 거들어 다고." 이라니께네 좋다 해서 내하고 둘이 하죠. "내가 초안 잡아가지고 주면 니 다시 문구하고 곤쳐라." 그래. 내 혼차 보는 거하고 그래도 학자가 보는 견해하고 틀린께 "둘이 엎치자." 그래가. 어제 아래[그저께] 우리 촌에 가가지고 우리 집터하고 동네하고 다 찍었어. 우리 동네가 600년을 묵은 동네거든. 그래가지고 편집하고 사진 옇고 이래 하면 되는데,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기 옳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차 고민을 하는 거야. 내놔 놓으면 백 사람 중에 다섯, 여섯이라도 날 욕하는 놈 있을 거 아이라. 내가 공직에 나가 큰 걸 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쓰는갑다 싶은데, 초야에 앉아있으면 "지가 뭐 한다고 이거 쓰노?" 카는 기 있을 기라. 그래서 내가 자제를 하는데, 이제 운명을 거둘 때 됐으니께 내가 한번 쓰는 거야.

차전놀이 하면
내 문 앞에 서기 온다

요즘은 쪼끔 내가 놀아도 좀 좋은 게, 문화재청 보유자 생계비[전수교육 지원금] 주잖아요. 인간문화재 돼가지고 150(만) 원[현재 200만 원] 타고 노인들 (연금) 들어오는데, 내 쓰는 거는 충분해요. 보유자 생계비 안 주면은 어렵죠. 고령자인테 그만치 주는 거 어데 있노. 집[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아들[자식들]이 돈 드는 건 저가 다 하니께네 그것도 남아요. 촌에 농사지으니께 먹거리는 농작물에서 다 오고 용돈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촌에 논밭이 있어요. 쫌 마이 있기 때문에 내 먹고사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내가 회장으로서 회원들한테 목돈을 써가면서 돈 쓰는 거는 못 하지만은 다른 건 애려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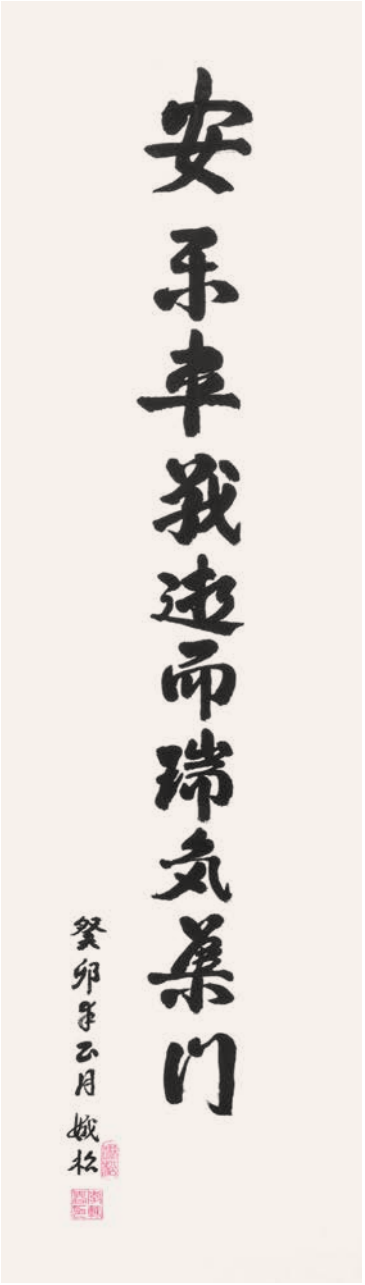
서예를 내가 못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댕길 때 내가 『소학』까지 띴어요. 굉장히 공부 마이 했죠. 근데 4학년 넘어서 한문이 없어져 뻐렸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한문을 안 썼으니께네 공부한 거나 모르는 거나 똑같애. 그런데 여 오니까 평상시에 큰일이 없잖아. 차전놀이 훈련할 때나 바쁘지. 그래 내가 (서예를) 쓰는 거야. 한 1년 반, 2년 됐지. (보존회에) 써놓은 거는 최근에 썼는데, 써보니까 '안동'카는 글씨가 참 힘들더라고. 몇 번을 쓰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할라 그러니 부끄러워 못 해. 조금 이따 쓸려고 또 제끼고 있어요. 내가 언제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께네 저게 내가 기념으로 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글씨 참하게 맹길라꼬.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연습을 마이 해.

저는 문구를 마이 적어놨잖아요. 신년 되면 올해는 사자성어가 뭐다 (하는 걸) 학자가 내고, 나라에서 내고 (하는데,) 이런 걸 내가 수첩에 다 적어놨어요. 저것[다난흥방(多難興邦)]도 내가 기양 써가 붙여 놨는데, 우리 차전놀이에서 볼 때는 방 자가 연방할 때 쓰는 방 자거든요. 그래 범위가 넓잖아요. 넓은 것을 마이 하면 흥한다, 마이 하면은 어려울 기 없다, 이득이 온다 이 소리거든. 그니께네 풀어 말하자 그러면은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은 바로 많은 이익이 온다, 마음을 넓게 써라 이 소리죠. 저 문구를 쓴 거는 우리 차전놀이가 크잖아요. 이게 단체놀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썼어요. 귀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빼껴가지고 썼는 거야.

안동차전놀이 서기[안동차전유이서기집문(安東車戰遊而瑞氣集門)] 그게 10자인데, 저걸 내가 지었어요. 안동차전놀이를 유연하게 하면은 문 앞에 서기가 온다, 신기로운 기운이 온다 그래가 저 문구를 써놨는데, 이래 보면 참 내용이 멋져요. 아주 자유롭게 놀면은 우리 문 앞에 서기가 온다, 그게 얼매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독도에 가가지고 저 문구 해가지고 깃발 해서 날렸잖아요. 그러니께 어디든지 '차전놀이 하면 내 문 앞에 서기 온다.' 이 소리인데, 저 문구 어디든 써먹잖아. 수백 명이 막 같이 가함지르고 하면 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이 온다 카는 거는 개인한테도 오는데 그게 안 맞다 (해서,) 그럼 내 집 문 앞에 서기가 온다(라고 쓴 거죠.) 서기라 그러면 일종의 빛

아닙니까, 그죠? 차전놀이를 할 때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뭐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노?" 카고 의미를 모르는 기야. 그래 내가 "집단으로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한테 복이 온다." 그게 내 머리에 떡 들어가지고 문구를 맹글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기념으로 남가놓을라고. 요즘에는 '내가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이만치 컸으면 됐지, 뭐.'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이런 유구한 고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도 보면 참 운이 좋았는 편이에요.



이재춘 보유자가 쓴 글

조사자 약력

이한승은 안동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하였고,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면담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민속학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전승자의 생애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전승하는 문화를 조사하려고 한다. 구술생애사를 중심적으로 다룬 것은 『흙으로 빚은 한 평생 : 서동규 장인의 구술생애사』충청북도·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1가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김일만 구술 자서전의 조사 및 면담을 맡기도 하였다.

지금은 충주댐 준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충주·단양 지역 수몰민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구술을 기록으로 전환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현재 국립경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에서 강사로 있으며, 충청북도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조사자 이한승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구술 자서전 057]
안동차전놀이
이재춘[李載春, 1941~]
의미와 사기를 상기시키는 데는 더할 게 없는 민속놀이지요

구술 이재춘[국가무형유산 안동차전놀이 보유자]
조사·면담 이한승
구성 작가 이혜나
사진 서헌강, 전일연

발행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063-280-1686
www.khs.go.kr
총괄 임승범
기획·진행 김계수, 임태영
교정 이화영, 안경희

구성·편집·디자인 **흐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59

발행일 2025년 12월
ISBN 978-89-299-3514-6 93600
발간등록번호 11-1833100-100087-01

© 2025 국가유산청.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